

3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56.27 (-4.95)	928.40 (+4.59)
금리 (연간)	환율 (원/달러)
3.711 (-0.021)	1321.80 (-1.60)



하반기 兆단위 대어급 출격 준비

IPO 주관사 실적 지각변동 예고

한투증권 주관 실적 4080억 '1위' 에코프로머티·두산로보틱스 大魚 미래에셋·NH투자증권 주관 주목



하반기 조 단위 '대어'들의 기업공개 (IPO) 출격이 예고되면서 주관사들의 실적 변동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두산로보틱스, SGI서울보증보험과 더불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연내 상장 가능성도 시사되면서 실적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31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현재 IPO 주관 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408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NH투자증권(2805억원), 미래에셋증권(2444억원), 삼성증권(1690억원) 순이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은 대형급 없이 중소형주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에 실적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KB증권이 LG에너지솔루션을 주관하면서 13조4479억원이라는 압도적인 실적으로 1등을 유지했다. 올해도 보안솔루션업체 '한씩'을

시작으로 두산로보틱스, LS머티리얼 등의 대어 주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관 실적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반기 IPO 시장은 침체된 양상을 보이면서 실적 변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조 단위 대어급의 출격이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유석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2개 정도에서만 기대감이 보이는 것 같다"며 "두 기업의 IPO가 흥행한다면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 잘 안 된다면 시장이 계속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시가총액이 3조~5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이르면 연내 상장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IPO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두산로보

틱스의 희망밴드(2만1000원~2만6000원) 상단 기준 예상 시가총액도 1조 6853억원이다. 만약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올해 상장한다면 두산로보틱스, SGI서울보증보험과 더불어 올해 세 번째 조 단위 대어급 신규 상장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대감이 높은 두산로보틱스와 에코프로머티리얼즈를 모두 주관하는 증권사는 현재 2, 3위를 지키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외에도 지난해 상장을 철회했던 밀리의 서재를 비롯해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대어급 IPO를 주관한다. NH투자증권 역시 SK에코플랜트 등 주관 일정이 활발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상반기에도 중소형사를 더불어 알매과과두를 모두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실적 흐름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두산로보틱스 등의 상장이 완료되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남산 지나가는 '블랙이글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31일 오후 서울 상공에서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축하비행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m-커버스토리

'사법 리스크' 방어 급급 방탄·사당화 논란 직면

'취임 1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든 이슈마다 '사법리스크' 발목 비이재명계 의원 당 사당화 지적

이재명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정치인이라기보다 행정가에 가까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는 확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으나 지난 1년의 성적표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관련기사 3면>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당내 역대 최고 득표율인 77.77%로 선출되며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열거나 당을 사당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이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협치의 의지를 보였으며, 각종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도 했지만, 사법리스크가 모든 이슈마다 따라 붙으며 이대표의 발목을 잡아 그의 노력은 빛이 바랬다.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이

후 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힘지로 가라는 일각의 요구에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에서 당선됐다.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압박한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 국회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결국 부결됐으나, 민주당의 이탈표를 확인하면서 리더십에 흠집을 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자신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사업에 대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6개월 만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농·어업 제외 전 생산 0.7% ↓ 전자부품·기계장비 등 크게 감소 투자, 11년 사이 최대폭으로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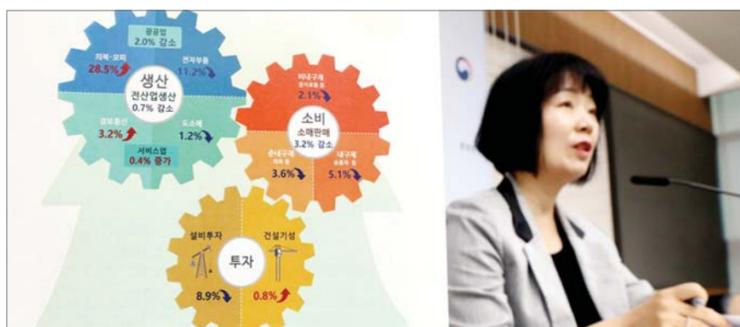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부 줄었다. 이른바 '트리플 감소'다. 투자의 경우 최근 11년 사이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 및 어업을 제외한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올해 1월에 감소(-0.2%)로 시작해 2월(1.1%)과 3월(1.1%)에 증가했다. 이후 4월(-1.3%)에 주춤했으나 5월(0.7%)에 반등했다. 그러나 6월(0.0%)에 상승세를 멈춘 데 이어 7월에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전자부품(-11.2%) 및 기계장비(-7.1%) 등에서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자부품은 액정표시장치(LCD)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전반적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라며 "이달은 6월(전월)에 전자부품이 10.5%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11.2%(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4.0%)와 자동차(4.8%) 부문에서 많이 증가했다. 소비(소매판매)는 6월보다 3.2% 줄었다. 이는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소비 역시 생산과 같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소비는 올해 1월(-1.8%) 감소한 뒤 2월(5.2%)과 3월(0.1%) 증가세로 전환했다. 4월(-

2.6%)에 감소했다가 5월(0.6%)과 6월(0.9%)에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달 다시 줄어들었다.

승용차등내구재(-5.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1%), 의복 등 준내구재(-3.6%)에서 모두 감소했다.

투자(설비투자)는 4월(0.8%)과 5월(3.1%) 증가했으나 6월(-1.1%)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8.9%)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 등의 운송장비 부문 설비투자가 무려 22.4% 급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김남국 제명안 부결'에 비명계 "이재명 책임론" 제기
- ▲ 국회 행안위, '이태원특별법' 의결... 야 단독 처리 /사진 뉴시스

- ▲ 이재명 단식... 한동훈 "맥락 없어"檢 "일체 고려없이 수사"
- ▲ 경실련 "양당, 선거법 '밀실야합' 중단... 비례 확대해야"



- ▲ 한 총리, '홍범도함' 함명에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 수정 검토해야" /사진 뉴시스
- ▲ [NBS]여야 대표 직무수행 평가... 김기현 28% 이재명 33%

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숙박 할인, 고속도 통행료 면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추석 성수품 공급 역대최대 규모
농수축산물 670억 규모 할인지원"
"하반기 정책 '민생안전' 최우선
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뛰어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휴 기간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주제인 추석물가 상황에 대해서도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지만, 주력 수출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확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아 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필요한 지원이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실질임금 5분기째 감소 15개월간 53만원 줄었다

근로자 실질임금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분기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상의 임금과 달리,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출한 지표로 직장인들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4만 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월 기준 실질임금은 올해 6월 336만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6% 줄었다.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치를 보면 단 한 번(올해 2월·0.7% 증가) 제외하고 14개월분이 줄어들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올해 2분기에 371만 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2.9%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에 3.7%, 5월에 3.3%, 6월에 2.7%를 나타냈다. 산술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분기에 월평균 3.2% 수준인 데 반해 명목임금 증가 폭은 이보다 0.3%포인트(p) 작았던 셈이다.

고용부, 지난달 사업체노동력조사 2분기 근로자 실질월급 334만원

명목임금 371만원 전년비 2.9% ↑ 물가 3.2% 오를때 0.3%p 상승 그쳐

실질임금은 지난해 1분기 387만 원(3.2% ↑)에 달한 뒤 2분기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1년3개월가량의 기간에 무려 53만 원(-13.7%) 쪼그라들었다.

작년 2분기에 2021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335만 원을 비롯해 3분기 358만 원(-1.7%), 4분기 355만 원(-1.1%) 등이다. 올해 1분기에 큰 폭(-2.7%)으로 줄어든 377만 원을 기록했고 2분기까지 내림세가 지속된 것이다.

올해 2분기 실질임금은 2년 전인 2021년 2분기 값(339만 원)보다도 적다.

이런 추세 속에 연간기준 실질임금 또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간 실질임금은 2018년(340만 원)에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2019년(350만 원)에 3.0%, 2020년(352만 원)에 0.5%, 2021년(359만 원)에 2.0% 상승한 바 있다.

한편 고용 부문에서 상용직근로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1.7% (27만1000명) 증가했다. 임시·일용직근로자 수는 6.8% (12만8000명)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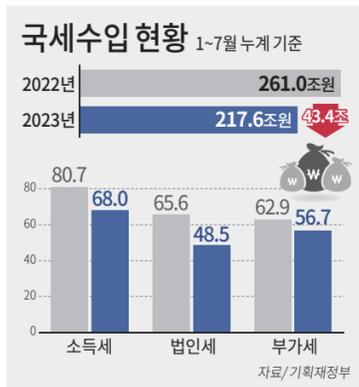
규모별로, 상용직 300인 미만은 1654만9000명으로 33만3천명, 300인 이상은 333만3000명으로 6만9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9만9000명 늘었다. 숙박·음식점업도 6만2000명 증가했으나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 2000명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올 국세수입 217.5조, 전년비 43조 ↓ '세수결손 심화'

기재부, 지난달 국세수입 현황
수입대비 진도율 54.3% 머물러



세(稅)수입 감소 폭이 최근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불거진 세수 결손이 하반기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 (43조4천억 원) 덜 걷혔다.

7월 국세수입은 3조7000억 원 줄어든 39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1~7월 누계기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의 감소 폭(39조7000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7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에 머물렀다. 지난해 7월 진도율(65.9%)과 최근 5년치 평균 진도율

(64.8%)를 10%포인트(p) 이상 하회한다.

남은 5개월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는 가정하에서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 원보다 48조 원이 모자라게 된다.

항목별로 7월까지 법인세수가 4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1%

(17조1000억 원) 덜 걷혔다.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68조 원 견혀 15.8% (12조7000억 원) 감소했다. 7월에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000억 원 줄어 감소 폭이 상반기에 기록한 11조6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1~7월 부가가치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9.7% (6조1000억 원) 감소한 56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는 9조1000억 원으로 1조 원 줄었다. 관세는 3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년과 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분(10조2000억 원) 등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새마을금고, 상반기 순손실 1236억

"예금이자비용·대출연체 늘어
총당금 적립비용 증가한 탓"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123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일어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1일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가 1236억원 규

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예금이자비용이 증가하고, 대출 연체발생에 따른 총당금 적립비용이 증가해 손익이 감소했다"며 "하반기 연체율관리 강화 등을 통해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대출잔액은 19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5조1000억원(-

2.5%)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85조1000억원으로 같은기간 5조9000억원 줄어든 반면기업대출은 8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 말(3.29%)과 비교해 1.82%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같은기간 2.73%p 늘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0.42%p 올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며 "다만 그만큼 자본적정성이 높은 수준이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2개 대어 흥행 실패면 시장에 악재"

>> 1면 '하반기 兆단위 대어급'서 계속

시장에서는 하반기 IPO 시장의 흥행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상반기까지의 주관 실적은 중소형사 IPO 위주로 이어지면서 큰 격차가 없었지만 하반기에는 대형 IPO 한 번의 흥행으로도 순위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큰 IPO가 없었던 만큼 하반기에 시장이

커지면서 활성화되면 실적 변동이 생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상반기에는 장이 어려웠던 만큼 상장 기업 자체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시장 흐름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며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가 유지돼서 IPO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실적 변동 여지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反尹 전선 구심점 역할... '민생행보-팬덤정치' 명암 뚜렷

'취임 1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 선출
네차례 검찰 출석 등 사법리스크 발목
총선성적 관건... 조기퇴진 목소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

이 대표는 올해 경제 침체를 이유로 정부에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해 왔으나, 실제로 성사된 바는 없다. 행정부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실과 협치가 되지 않으니, 강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단식 농성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 선출에서부터 무기한 연장 농성 돌입까지, 이 대표의 지난 1년에 빛과 그림자도 뚜렷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등장

이른바 '명나대전'으로 회고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은 두드러졌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의 대선 후보급 주자들이 사건과 비리의혹으로 전열에서 이탈하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마저 대선 경선 패배 후 미국 유학 길에 오르자 이 대표가 유일한 선택지로 떠올랐다.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해 장사하는 상인들과 만나고 코로나19 대유행 때 가평 신천지 연수원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행정가' 이미지를 쌓았고 비록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밀려 석패했으나 지난해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됐다.

기쁨도 잠시였다.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시작으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족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에 출석해야 했고 검찰 조사에도 응해야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이날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임박할 것이라는 질문에 그는 "체포동의안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구속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갖고 이 나라 국민을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 극성팬덤·계파갈등 논란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 대선, 지방선거 등 대형 선거를 거치면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의 수가 크게 늘었다. 이 대표는 트위터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 지지자와 소통하면서 친밀감을 쌓기도 했다.

그 중 일부 당원이 이 대표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같은 당 정치인이나 당원들에게 비속어가 담긴 문자 폭탄을 남기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면서 당 안팎의 우려가 나왔다. 이른바 '극성팬덤'의 출현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이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음에도 사태를 가라앉히지 않거나 뒤늦게 나서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 대표의 극단 지지층에게서 문자 폭탄을 여러 차례 받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이 대표의 1년을 평가하면서 "정당민주주의의 철차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 소수파인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리스크에 당 전체가 방어를 나서는 것은 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고, 이 대표가 있는 한, '돈봉투 사건' '코인의혹'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총선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

제22대 총선에서 받아들 민주당의 의석수에 따라 이 대표의 최종 성적표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제1야당 대표로서 반(反)윤석열 전선에 구심점 역할을 한 이 대표이기 때문에 조기 퇴진을 부정하는 당의 시각도 존재한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 식의 주장은 정권이나 검찰이 바라는 것"이라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당이 난파될 위

기에는 구성원들이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대해 결사항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총선에서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막기 때문에 제도나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퇴행하지 못한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법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권력까지 갖게 될 경우엔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망가질 지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한다. 그 길에 우린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입법 성과 체감 어려워... 지지율 제자리”

>> 1면 '사법리스크 방어...'서 계속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인사인 설훈 의원은 지난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 대표가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이 대표가 몸을 던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이재명계는 정치검찰이 근거도 없이 제1야당에게 무도한 정치 검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스토킹"이라고 주장하고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현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나"라며 사퇴론을 불식시켰다.

전문가들은 유능한 대안 야당으로서

의 민주당으로 기억되기 보다, 방탄과 사당화 논란이 더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고 평론했다.

신울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1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자기 방어, 다시 말해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어에 급급했던 1년이였다"며 "입법 성과도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많이 했으나, 그 이외에 어떤 입법 성과가 있었는지는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를 것이다. 핵심 지지층을 위한 법안이 민생 법안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정치학)도 "이재명 대표가 취임할 때 민주당 지지율보다 지금 지지율이 더 낮은 조사도 있다. 집권당과 윤석열 정부도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대표의 민주당이 더 못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친환경 에너지 LX인터내셔널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판토스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하우시스 신소재 개발 LX MMA 차세대 반도체 LX세미콘

LINK FOR NEXT



추석 성수품 공급 1.6배 늘린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마련
1인당 2만원 한도로 20%까지
제로페이 이용시 20~30% 할인
배추·무·사과·배 등 평시대비 ↑



한국은행이 '국내외 식료품물가 흐름 평가 및 리스크 요인' 분석을 통해 국제 식량가격 급등세가 국내 식료품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기상여건 악화, 러-우크라 전쟁, 흑해 곡물협정 중단, 인도 쌀 수출 중단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 등이 주 요인이다. 결국 국내 저소득층 가계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식료품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뉴시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4개 추석 성수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된다. 온오프라인 마트에서 농축수산물 구입시 1인당 2만원 한도로 20%까지 할인되고,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앱 이용시 20~30% 할인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추석 성수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공급을 늘리는 농축산물은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소·돼지·닭고기·계란·밤·대추·잣이다.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이들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4만9000톤 확대 공급한다.

특히,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사과·배는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전년보다 7~8% 수준 확대하고, 닭고기는 계열업체

입식자금 지원과 할당관세 추가 적용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한다.

배추·무의 경우 현재는 안정적이거나 기상 악화에 따라 수급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미리 비축한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수급 불안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3주 전인 내달 7일부터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29일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정부가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 업체가 추가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추석명절 20대 성수품과 평년대비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고등어·오징어, 고사리·도라지·전복·마른김 등 제수용품 등이 할인지원 대상이다.

할인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한국 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원 한도로 20~30% 할인

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축·수산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편의를 위해 내달 11일 제로페이 농축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9월21일~27일까지는 150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정부 할인행사와 함께,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도 추진된다.

농·축협은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e-하나로마트) 등에서 제수용품과 과일·한우 선물꾸러미 등 최대 40% 할인 판매(~9.28)하고, 산림조합·임업진흥원은 우체국쇼핑, 네이버쇼핑 등과 연계해 임산물 직거래 장터(9.7~27일, 10~20% 할인), 2023 추석맞이 청정임산물특별기획전(9.11~10.15)을 운영한다. 한우·한돈자조금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한우 구입류·정육, 돼지 삼겹·목살 등 최대 20~50% 내외 할인판매(9.18~28)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석 명절 먹거리 전반의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및 가공식품·외식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경기도에는 원하는 배움이 **多** 되는 경기공유학교 **가 있다**

- ✓ 학교밖에서도
- ✓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추석명절 자금난 숨통 틔우기 中企·소상공인에 7.2조 푼다

중기부, 中企·소상공인 민생 안정 방안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 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 명절 전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으로 완화를 위해 7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9~10월 총 7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으로 완화를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9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조7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3조6000억원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30만원씩 더 늘렸



세종시에 있는 중소기업창업청사.

다. 이에 따라 지류형은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카드형·모바일은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10~12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공공부문 전통시장장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황금년 동행축제가 9월27일까지 열린다. 온라인몰, 백화점, 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만 4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지역축제와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달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1988년 존재감을 알린 대한민국



2002년 저력을 보여준 대한민국

2030 부산 엑스포로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힘은 더 위대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SK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 ▶



국방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검토

“공산당원 이름 쓸 수 없어” vs “합의·숙고없이 밀어붙여”

국회 예특위 2일차 종합정책질의

한 총리와 기동민 의원 의견 맞붙어 전 세계적 잠수함 개명 사례 없어 “민생보다 이념” “자유민주 따른 것”

국방부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개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합의 없이 이념을 앞세워 정부가 밀어붙이려 한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고성을 지르며 맞붙었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종합정책질의에서 해당 문제를 답변해야 할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출장을 이유로 이석한 것을 “도망갔다”고 표현하면서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복해 말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서삼석 예결특위 위원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시스

장이 중재에 나서서 일단락 됐으나, 기 의원은 홍범도함 개명 검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기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함의 개명을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전 소련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없다. 저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잠수함의 개명 사례가 있느냐”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전세계 사례가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기 의원은 “나라가 망했거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마음대로 잠수함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다. 왜 유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나. 1999년도에 지자체가 통합되면서 이리함이나 익산함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것 이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념의 문제를, 학계에는 논란이 있는 문제를 전면화시킨 것이다. 국방부 내부의 입장도 다르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기준도 다르

다”며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의 숙고 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민생이 중요한데, 이념을 상위 가치로 내세워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민생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본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국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그렇게 봤을 때 헌법 제1조에 맞지 않은 일을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왜 극우적인 인식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육군사관학교 교정의) 독립지사 5인의 흉상 이전도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지 않다”고 맞섰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니·인도 순방길

이달 5일부터 5박 7일 일정
한중일 협력·양자회담 가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달아 방문한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5~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일정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저녁 자카르타에 도착 직후 동포 만찬간담회를 열고 동포사회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문 이틀째인 6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인 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같은 날 오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 활성화를 모색하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7일에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일정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체류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 후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 직후 동포 간담회를 가진다. 또,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과 간담회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한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김 1차장은 “일부 회

담은 G20 정상회의 폐회 이후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 본격 추진 ▲글로벌 책임 외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G20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중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중국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는 중국주석이 참석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번 다자회의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행사에 나올지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 고위관계자는 “따라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우리 대통령이 할지는 중국이 G20에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그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

조강특위,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10명 임명

김성태·오신환·이승환 등 포함

국민의힘이 공식인 사고 당협 36곳 중 1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인선안에는 김성태 전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전 의원,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31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심사한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발표되는 조직위원장은 이후 지역 당 조직 의결을 통해 당협위원장이 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3명, 대전 1명, 세종 1명, 경기 3명, 충남 1명, 전북 1명 등 10명을 선임했다”며 “나머지 26개 지역은 책임자 부재, 선거구 개편 예정 등 인해 계속 심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선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은 강서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전 의원은 원내대표 당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한 바 있다.

재선으로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은 서울 광진을, 전북 전주율도 재선인 정운천 비례대표 의원이,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중량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는 용인병에 인선됐으며 검사 출신인 정필재 변호사는 경기 시흥갑, 박경호 변호사는 대전 대덕, 류제화 변호사는 세종갑에 임명됐다. 경기 안산 단원은 서정현 경기도의원이, 충남 아산에는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이 인선됐다.

조강특위는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경쟁력, 기존 당협조직과의 융화, 지역 기반(연고, 지역단체활동), 대선·지선 등 당 기여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이해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꼽았다. /박정익 기자

김기현 “진정성 인정받을 때까지 최선 다할 것”

호남 출신 인사 지원 등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남 순천을 찾아 호남지역 출신 인사 지원 등을 약속하며 “진정성이 전남도민의 마음에 닿아 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호남 구애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주말 1박 2일로 호남을 찾아 광주에서 숙박한 후 광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지역 현안 건의를 들은 데 이어 어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순천으로 내려와 순천에서 1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취임 이후부터 호남에 매일 한 두 차례 이상씩 내려오다 보니 이제는 고향 같은 편안함을 느껴진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요즘도 호남 인사들을 만나면 상

당수는 이렇게 말한다”며 “일당 장기독재가 지역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 “지금의 민주당은 DJ(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 볼 수 없다”, “호남의 민주화 정신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호남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발전” 이런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요즘 국민의힘에 굳게 단련된 호남 민심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고 있다”며 “책임당원 숫자도 급증하고 당을 대표해 활동하는 호남 지역 출신 인사들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장 우리 당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 즉 40%가 호남 출신으로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김기람 최고위원은 전남 출신의 40대 청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인물들을 더 뒷받침하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전남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쏟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빌리티 기술의 미래, 현대모비스가 함께합니다



시중은행 예·적금 유치경쟁... 연 13% 고금리 '미끼상품'도

은행 적금 최고금리 평균 5.51%
실제 취급금리 평균은 3.42% 불과

친구추천 등 우대조건 미 충족 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받을수도

직장인 안 모씨(32)는 최고 연 13%의 금리를 준다는 A은행의 특판적금을 알아봤다가 황당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연 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우대조건 탓에 추가로 1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제휴된 통신사에 가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까지 유지해야 9%p 특별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은행권이 최고 연 13%에 달하는 고금리 특판 예·적금을 잇달아 내놓으며 수신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우대조건 탓에 실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는 드물어 '미끼 상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이 예적금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연 10%를 웃도는 상품까지 등장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뉴스시스

3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국내 은행의 적금 상품 최고금리 평균은 5.51%로 집계됐다. 하지만 해당 상품들의 실제 취급금리 평균은 3.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중은행은 연 7~13%에 달하는 고금리 적금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2% 가량의 기본금리만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이 출시한 '데일리 워킹 적금' 상품은 최고 연 11.00%의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본 금리가 1%에 그친다.

또 우리종합금융이 출시한 'DP 정기 적금'은 연 1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본금리 연 2.0%에 현역군인 또는 친구추천 3.0%p, 마케팅 수신동의

1.0%p 등 우대 조건을 갖춰야 연 10%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적금 만기는 6개월이고 가입금액도 최고 20만원에 불과하다.

신한은행이 선보인 '신한 SK LPG 쓸쓸한 행복 적금'도 마찬가지다.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를 더하면 총 연 7.0%의 금리를 제공하지만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SK LPG 행복충전멤버십 회원(0.5%p), 매달 SK LPG 충전금액 15만원 이상(0.2%p)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2개월 만기로 월 불입액도 30만원 수준에 그친다.

KB국민은행이 판매 중인 '특별한 적금'도 '최고 연 6%'를 내걸었지만 이중에서 4%p가 우대금리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광주은행이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최고 연 13.0%의 금리를 제공하는 '광주은행 제휴적금 with 유플러스닷컴' 상품을 이달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3.0%, 우대금리는 10.0%p를 제공하지만 LG유플러스 특정 요금제에 가입한 후 최소 10개월간

유지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은행권이 고금리 숫자 마케팅을 내세워 '미끼' 상품을 내놓는 이유는 수신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실제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6월 말 822조2742억원에서 7월 말 832조9812억원으로 10조707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기적금 잔액 역시 40조841억원에서 41조2520억원으로 1조1679억원 가량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미끼 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융사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고금리를 내세운 상품들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우대금리 조건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가 다수 있다"며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을 더 내야할 뿐만 아니라 시중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내달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시행

ESG기준원·연구소, 서스틴베스트 홈페이지로 가이드스 준수 현황 공개

9월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가이드스가 시행된다. 평가기관이 무분별하게 기업의 ESG를 평가할 수 없도록, ESG 평가기관의 평가절차와 평가방법을 먼저 공개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3개 ESG평가기관을 대상으로 ESG 평가기관가이드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3개 ESG 평가기관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다.

가이드스는 총칙-내부통제체제 구축-원천데이터수집-비공개정보관리-평가체계공개-이해상충 관리-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 6장·2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3개 ESG평가기관은 모범규준으로 마련돼 있는 가이드스에 세부



내달부터 ESG평가기관 가이드스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상장사 ESG평가 캡처

적인 평가방법을 더해 자율규제한다. 이날 3개 ESG평가기관은 가이드스 준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각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드스 준수 현황을 공개한다.

가이드스 세부항목별 준수여부를 원칙 준수·예외 설명 방식으로 공개하고,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공개한다.

3개 ESG 평가기관의 준수현황보고

서와 평가방법론은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플랫폼 'ESG포털'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시행으로 ESG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ESG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2분기 거주자 해외 카드사용 27% 증가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 ↑
온라인 통한 해외직접구매도 늘어

올해 2분기(4~6월) 국내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을 통해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 1년전과 비교해 2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접구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실적'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 금액은 모두 46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5000만달러, 1년전과 비교하면 10억달러 증가한 수준이다.

카드 해외사용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온라인 해외직접구매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액을 보면 1분기 12억달러에서 2분기 12억4000만달러로 3.8% 증가했다.

카드 종류별로 보면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은 35억7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2% 늘었지만,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각각 -2.4%, -5% 줄었다.

2분기 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카드 사용액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외국인이 2분기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한 금액 24억95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27.4% 증가했다.

/나유리 기자

신협, 하반기 40명 안팎 신입직원 공채

신협중앙회가 하반기 공개채용에 나섰다.

신협중앙회는 '2023년 하반기 신용협동조합신입직원공채'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총 24개 신용협동조합에서 40명 안팎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내달 15일 오후 4시까지다. 원서 접수는 '신용협동조합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용 전형은 총 두 달간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9월 25일) ▲필기전형(10월 7일) ▲모집신협별 최종면접(10월 17일) ▲최종합격자 공고(10월 31일) 순이다.

지원 자격에 연령, 학력 및 전공 등의 제한이 없다. 모집신협 소재지 인재일 경우 우대 자격이 주어진다. /김정산 기자



강신숙 Sh수협은행장(왼쪽 세 번째)이 경북지역 우수고객사인 (주)다온신개발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h수협은행

강신숙 수협은행장, 현장경영 대장정 성료

전국 19개 금융본부 방문 마무리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찾아가는 현장경영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Sh수협은행은 경북금융본부를 끝으로 전국 19개 금융본부를 모두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행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매월 전국의 금융본부를 직접 방문했다. 고객 접점 서비스를 점검과 직원 격려 등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번 경북금융본부 방문을 통해 하반기 경영목표와 과제 등을 공유했다.

강 행장은 "하반기 지속 성장의 성패는 연체율 관리에 달려있다"며 "체계적

인 고객관계관리를 통해 고객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회생 가능한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3방·5통·10사' 실천도 강조했다. '하루에 고객사 3곳 이상 방문, 5명 이상의 고객과 통화, 고객의 상황과 니즈를 분석해 최적의 지원방안 10번 이상 생각한다'는 마케팅 기법이다.

이어 강 행장은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 시민·기업고객과의 상생 실천을 위해 수협은행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하나은행 VIP고객 자산관리 WM 법률자문단

하나은행은 VIP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 WM 법률자문단'을 발족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법률자문단은 VIP고객의 법률 니즈가 가장 많은 상속·증여 등 가사 부문과 임대차·매매, 토지보상 등 부동산 부문에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자산관리(WM)사업 강화를 위해 올해 초 WM본부 내 자산관리컨설팅센터부서를 신설했다. 센터는 상속증여, 부동산 투자자문,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구남영 기자

르노 익스피리언스 ‘밸류 업’... XM3·QM6 등 상품성 강화

르노코리아 자동차 기자간담회

고객 접점 확대... 내수 시장 공략
XM3 연식 변경·QM6 가격 인하
드블레즈 사장 “새로운 가치 선사”



스텝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이 3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형 고객 경험 프로그램 ‘르노 익스피리언스’의 올해 두 번째 업데이트 버전인 ‘밸류업’을 설명하고 있다.

신차 부재로 내수 부진에 빠진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판매 회복을 위해 고객 접점 확대와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다.

르노코리아는 내년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기존 모델들의 상품성 강화와 함께 종합 고객 경험 프로그램 ‘르노 익스피리언스’를 업데이트한 두 번째 버전 ‘밸류업’을 선보인다. 특히 현대차·기아와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부분변경을 거치며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스텝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 스텝 드블레즈 사장은 “르노 익스피리언스는 르노코리아가 한 단계 더 높은 고객 만족을 향해 고객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며 “제품, 커넥티비티, 서비스 등 르노코리아가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르노코리아만의 가치를 고객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새로운 영업 마케팅 조직 구성과 함께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르노 익스피리언스는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상품·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시승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체험 기회 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다. 르노



르노코리아가 31일 ‘르노 익스피리언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르노 시티 로드쇼’를 서울시청 인근 프레스센터 1층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르노 시티 로드쇼’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경기 기흥,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코리아는 지난 3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첫선을 보인 르노 익스피리언스 이어 약 6개월 만에 두 번째 버전을 공개했다.

이번 르노 익스피리언스는 XM3, QM6 등 주요 모델을 상품성 측면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세그먼트별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드블레즈 사장은 소개했다.

특히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연식변경

과 부분변경 등을 통해 차량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르노코리아는 상품성은 개선한 반면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르노코리아는 쿠페형 SUV XM3는 2024년형으로 연식변경 한다. XM3 라인업 중 66%로 가장 높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1.6GTe 모델에 신규 ‘인스파이어’ 트림을 추가한다. 해당 트림은 RE 트림에 1열 통풍시트와 2열 열선 등

290만원 가량의 옵션을 추가 적용했으며, 360도 어라운드뷰 모니터 등의 첨단 기능도 새롭게 적용했다. 그러나 가격은 2680만원으로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

QM6는 가성비를 한층 극대화 한다. QM6의 전체 판매량의 77%를 차지하는 LPE 모델은 고객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트림별로 가격 인하에 나선다. QM6 LPE LE 트림은 91만원 인하된 2840만원, 가장 인기트림인 RE의 경우 3170만원으로 195만원 하향 조정했다.

이 외에도 XM3, QM6, SM6 등 모든 모델에 초미세먼지 고효율 필터가 적용되며, LED 도어스팟 램프도 추가된다. 또 이번 르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하고 차량 개폐 및 원격시동 등을 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스마트위치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이번 르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강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오는 10월 9일까지 ‘르노 시티 로드쇼’를 전국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온, 세계 최고 리튬이온전도도 고체전해질 개발 삼성·LG 등 친환경 新가전 총출동

LLZO 균일 제어... 안정성 우수 고품질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대

SK온이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전도도를 갖는 산화물계 신(新) 고체전해질 공동개발에 성공했다.

리튬이온전도도는 전해질 내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로 속도가 빠를수록 배터리 출력이 커지고 고속으로 충전된다. SK온은 이번 개발로 전고체배터리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온은 단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희정 교수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관련 연구결과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스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19.9))’ 표지논문 게재됐다고 31일 밝혔다. SK온과 단국대 공동 연구팀은 해당 기술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해당 고체전해질은 리튬이온전도도를 크게 높이고, 대기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SK온-단국대 연구팀은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인 Li-La-Zr-O (리튬-란타넘-지르코늄-산소·LLZO)의 첨가물질 조정을 통해 리튬이온전도도를 기존보다 70% 개선(1.7mS/cm·센티미터당 밀리시멘스)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또 리튬이온전도도가 높아지면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SK온-단국대 연구팀은 이를 LLZO의 미세구조를 균일하게 제어하는 기술로 극복했다. SK온은 “고체전해질은 통상 수분(H₂O)과 이산화탄소(CO₂)에 취약해 장시간 대기에 노출되면 전해질로서의 기능이 떨어지지만 이 고체전해질은 매우 우수한 안정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용량도 크게 늘릴 수 있다. 특히 액체전해질을 사용한 리튬이온배터리(LiB)의 최대 사용 전압은 최대 4.3V

이지만,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을 사용할 경우 최대 5.5V까지 늘어난다. 이를 배터리 제작에 적용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배터리 용량을 최대 25%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고체전해질은 현재 NCM 양극재를 기반으로 하는 전고체배터리 외에도 차세대배터리로 꼽히는 리튬-황 배터리와 리튬-공기 배터리를 전고체화할 수 있는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SK온은 현재 개발 중인 리튬-황, 리튬-공기 배터리는 LiB와 같이 액체전해질을 사용하는데 이 고체전해질을 적용해 전고체배터리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최경환 SK온 차세대배터리연구센터장은 “SK온은 압도적인 미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차세대배터리 분야의 성장 기회를 선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zelkova@

IFA2023 업체간담회

삼성 “스마트싱스 등 의미있는 연결”
LG “싱큐 이용한 통합 경험 제공”

IFA2023이 개막 준비를 끝마쳤다. 친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래 기술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IFA2023은 30일과 31일(현지시간) 업체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첫날 지멘스와 밀레, 로버트 보쉬와 로보라에 이어 31일에는 삼성전자와 AEG 등이 자리를 마련했다. LG전자와 한국엔컴퍼니 계열사인 모델솔루션 등도 주요 기술을 발표했다.

◆ 신가전 총출동

IFA2023은 친환경 정책에 대응한 고효율 가전과 함께 다양한 신가전이 첫선을 보인다.

LG전자는 ‘모두를 위한 즐거움과 지속가능한 삶’을 테마로 ‘LG 지속가능한 마을’을 꾸렸다. 소형 모듈러 주택 ‘LG스마트코티지’로 친환경가전을 소개하고, 주변에는 스탠바이미 Go를 유럽에 처음 선보이며 아웃도어 생활에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싱큐홈 전시 공간에서 UP 가전 2.0도 글로벌에 내놨다. 장애인도 가전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업 키트 체험 가능하다. 특히 무선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M과 건조기 성능을 대폭 높인 새로운 시그니처 세탁건조기도 공개했다.

삼성전자 역시 비스포크 세탁건조기와 더 프리스타일 2세대 등 주요 신제품과 함께 에어컨 실내기에서 냉매와 물을 열교환하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온수를 만드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EHS도 내놨다.

◆ 초연결도 현실로

스마트홈, IoT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삼성전자 삼성프드를 소개하는 공간



LG전자 싱큐홈

몽친 단체 HCA가 최근 표준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IFA2023에서도 ‘초연결’ 지원 발표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환경, 사람, 미래 관점에서 ‘의미있는 연결’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친환경은 물론 초연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삼성전자는 IFA2023에 스마트싱스를 활용한 AI절약 모드를 중심으로 ‘의미있는 연결’에 초점을 맞췄다.

ABB와 SMA 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과 함께 미래형 친환경 주거 구축 모습도 소개했다. 6G 이동통신 개발을 주도하고 보안 시스템인 ‘삼성 녹스’도 함께 소개하며 기술적인 우위도 자랑했다. 대표적으로 삼성프드가 있다. 16만 개 이상 레시피를 제공하고 삼성헬스를 활용해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 소비자 건강을 지켜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HCA 멤버사인 LG전자 역시 싱큐홈에서 싱큐를 이용한 통합 경험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13리터 6기통 ‘스키니아 슈퍼’ 공개... “韓 시장 공략 강화”

스키니아코리아 기자간담회

에콜루션 2.0 등 서비스 솔루션 제시

스키니아가 효율을 크게 개선한 엔진으로 국내 상용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스키니아코리아는 31일 서울 흥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스키니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엔진을 탑재한 스키니아 슈퍼와 함께 에콜루션 2.0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 솔루션 전략을 공개했다.

새로운 스키니아 슈퍼는 새로 개발한



13리터 6기통 인라인 엔진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5년여 연구를 통해 460마력과 500마력, 560마력 등 3종으로 출시했다.

새 엔진을 통해 스키니아 슈퍼는 전작 대비 연비를 8%나 줄였다. 마모도 크게 축소돼 수리 부담도 낮췄다는 설명이다. 승차감도 개선했다. 브레이크 열 효율성도 50%에 달해 효율과 친환경성도 잡았다.

서비스 솔루션 ‘에콜루션’도 2.0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은 물론 운전자 교육과 운행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가입 대상도 덤프 트럭으로 넓혔다.

이날 행사는 이번달부터 스키니아코리아 지휘봉을 잡은 아르코 케틀라 대표(사진)도 참석했다. 품질 관리 전문가로, 처음으로 아시아에 왔다.

케틀라 대표는 ‘스키니아 슈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표하며 “한국 고객들이 스키니아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네이버·삼성SDS 등 기업용 AI 선점... B2B 시장 '정조준'

오픈AI·MS·구글등 기업용 AI 공세 SKT·KT 등 국내 대기업들 맞붙 LMM 이어 기업용 AI서비스 초점 자사 클라우드에 LLM 형식 접목

네이버, 삼성SDS 등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AI시장 선점 전략으로 B2B(기업간 거래) 카드를 들고나섰다. 개인용 거대언어모델(LLM)에 이어 기업용 AI서비스까지 확대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31일 I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기업용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빙 챗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다. 또 구글도 워크스페이스용 듀엣AI 출시를 알렸다.

앞서 챗GPT, 빙 챗엔터프라이즈, 듀엣AI 모두 기업용 AI서비스로 3사 모두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국내 네이버, KT, 엔씨소프트, 삼성SDS 등의 대기업들도 기업용 AI 서비스 발걸음에 과감히 뛰어 들었다.

LLM 기반의 생성형 AI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려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투자금이 드는 만큼 기업용 AI서비스를 통해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분석이다.



/픽사베이

자사 클라우드에 LLM 서비스 형식을 접목시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업들은 자사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각 사의 방향에 맞게 생성형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오픈AI는 최근 챗GPT 비즈니스 버전인 '챗GPT 엔터프라이즈' 모델을 선보였다. 개선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회사는 28일 발표한 블로그 글에서 Canva, 에스

티로더, PwC 같은 기업들이 초기 사용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챗GPT가 출시된 이후 9개월 간 포춘 500대 기업 중 약 80%가 챗GPT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블록, 캔바, 에스티로더, PwC 등이 초기 고객사라고 전했다.

MS도 기업용 챗봇인 '빙챗 엔터프라이즈'를 지난달 출시했다. 빙챗 엔터프라이즈는 검색엔진 빙에서 제공되며, 기업의 상업용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면

서 업무용 AI 기반 채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글도 기업용 AI 서비스인 구글 미트, 구글 챗, 구글 닥스, 구글 시트, 지메일 등으로 구성된 클라우드 협업 소프트웨어 도구인 워크스페이스에서 활용 가능한 '듀엣(Duet) AI'를 출시할 계획이다. 구글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30달러(약 4만원)의 요금을 책정했다

이에 국내 대기업들도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통신사 중에서는 SK텔레콤, KT가 IT 업계에서는 네이버, LG그룹 AI연구실 등이 기업용 AI 서비스 출시에 가장 적극적이다.

SK텔레콤은 기업·공공기관 등의 요구에 맞춰 ▲대화 및 고객센터 등 통신사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해온 에이닷 LLM ▲윤리적 답변 및 대용량 텍스트 입력에 강점이 있는 엔트로픽의 LLM ▲한국어 데이터가 풍부한 코난 LLM 등을 조합해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기술 및 사업적 준비를 진행 중이다.

KT는 파라미터 2000억 개 이상인 LLM '민음'을 개발하고 있다. 민음은 이르면 올해 10월 출시 예정이다.

이에 자사 클라우드에 AI관련 기술들을 접목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달 초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대화형 AI 챗봇 '클로바 X'를 내외부 서비스와 연동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툴 '프로젝트 커넥트X'와 AI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 등을 준비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은 논문 등을 학습한 '엑사원(EXAONE) 2.0'을 토대로 전문가용 대화형 플랫폼 '유니버스' 등의 사업화를 추진한다.

삼성SDS는 다음달 12일 '리얼 서밋 2023'에서 기업용 올인원 생성형 AI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게임업계중 최초로 엔씨소프트는 AWS마켓플레이스에 바르코LLM을 출시했다. 게임 개발자는 게임 제작, 비주얼 콘텐츠 제작,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한 스크립트 작성 등에 바르코 LLM을 사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T기업들을 시작으로 AI경쟁이 더 구체화 되고 있다. 대화형 LLM에 이어 산업별 니즈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를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용 AI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기업용 AI서비스 모델 개발로 수익원을 확보하면서도 해당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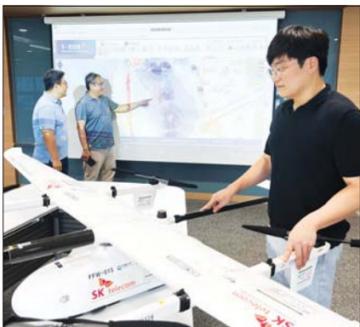
SKT, UAM 선도... 상공망 기술 개발 본격화

UAM 통합솔루션·시뮬레이터 개발 드론 통해 측정된 데이터 분석 툴 활용 측정결과 지도·그래프·도표 시각화

SK텔레콤이 UAM(도심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상공망 기술 개발에 본격 나섰다. SK텔레콤은 UAM용 상공망의 통신 품질 실·예측 및 분석을 위한 통합 솔루션과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SKT는 300~600m의 운항 고도와 100~150km/h의 순항 속도로 도심·준도심·관광지역 상공 항로를 비행하는 UAM 기체와 유사한 통신 환경을 갖춘 드론을 활용, 상공망의 품질을 측정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했다.

SKT가 이번에 개발한 통합 솔루션은 드론을 통해 측정된 상공망 품질 데



SKT 직원들이 드론을 통해 UAM용 상공망의 품질을 측정/분석하는 모습. /SKT

이터를 분석 툴을 활용해 실시간 표시하고, 측정 결과를 지도·그래프·도표로 시각화해 나타낸다.

또 통화·SNS·동영상 시청 등 UAM 탑승객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도 적용해 상공망의 통신 서비

스 품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SKT는 UAM용 상공망의 통신 품질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터도 개발했다.

SKT가 자체 개발한 상공망 통신 품질 예측 시뮬레이터는 비행 경로·고도 설정, 안테나 높이, 상향 틸트, 지향 각도 및 빔 패턴 등 통신 품질에 변화를 주는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통합 분석할 수 있어, 기지국 설치 환경, 지상망 간섭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고려한 상공망 투자비 산출 및 최적 설계 방안 도출에 활용 가능하다. 또 SKT는 시뮬레이터 성능 개선을 위해 향후 최적의 기지국·안테나 설정값을 추천하는 AI(인공지능) 기반 최적 설계 모델을 개발하여 상공망 품질을 높이고 분석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중소업체, 50인미만 기업 유예연장 '목소리'

최소 2년유예 반드시 필요 호소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27일부터인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최소 2년 유예해 달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 배조웅 수석 부회장, 이명모 인력정책본부장이 이날 오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을 방문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불과 5개월 후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

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들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별도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다. 특히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근로자 한명 한명이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면서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해 사후 처벌이 아닌 실질적 산재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승호 기자

SK하이닉스, 고려대 반도체과 전원 美 대학서 공부한다

UC 데이비스서 1쿼터 간 유학

SK하이닉스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 데이비스에서 공부시킨다.

SK하이닉스는 30일 고려대와 UC 데이비스와 함께 학생 파견 협정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SK하이닉스가 2021년 개설한 계약학과다. 이번 협정을 통해 2학년년부터 전원 UC 데이비스에서 1쿼터

간 유학할 수 있다. 지역 홈스테이에 거주하며 등록금과 체류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SK하이닉스는 학생들이 향후 리더로 왕성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 차원에서 UC 데이비스와 연구 분야 국제 협력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공학과가 첨단기술의 중심에서 더 나은 세

상을 만들어가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협약 체결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핵심 인력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로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

한화오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작'

연구개발·설계 등 직무 대상 공고

한화오션이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8월 31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채용은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으로 편입 후 첫 번째로 시행하는 신입사원 채용으로 연구개발, 설계, 생산, 영업, 사업관리,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대상으로 9월 24일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 /양성운 기자 ysw@

지원요건은 연구개발은 석사이상, 그 외 직무는 학사이상 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1차면접 ▲최종면접 순이다.

한화오션은 직무소개, 재직자 인터뷰, 채용 홍보행사 일정 등 지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이크로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



한국외대, 첨단지식을 HUFSS하다

글로벌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대학, 한국외대 2024학년도 신설학부



Language & AI융합학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AI데이터융합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
3년 연속 선정

100개국 617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 협력

캠퍼스 구분 없는
이중전공 &
7+1 해외파견

특수외국어
16개 포함
45개 외국어 교육

다양한 현장
글로벌 인턴십과
취업 지원

Come to HUFSS Meet the World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3. 9. 12.(화) 10:00 ~ 9. 15.(금) 17:00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엔저 장기화에 日 주식 관심 ↑... 금투업계, 상품 출시 '잔걸음'

국내 투자자들 3.9억달러 순매수
전년동기비 16배가량 증가한 수치
하나증권, 엔화 투자 '엔캐리랩'
한국투자증권, ETN 6종 신규상장



엔화 하락세가 이어진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엔·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엔저 현상 장기화로 일본 증시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증가하자, 금융투자업계는 일본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투자자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일본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초부터 전날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주식 3억9000만 달러 가량을 순매수했다. 이는 전년동기(2325만 달러) 대비 16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난달 순매수 금액은 1억5388만 달러로 2021년 3월(1억7537만 달러)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도 1억427만 달러를 사들이며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상장된 일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도 증가하고 있다. 엔화 강세에 베풀리는 TIGER일본엔선물 ETF의 순자산은 전날 기준 1081억 원으로 올 초 180억 원대 수준이었던 것이 비하면 6배가량 증가했다. TIGER일본TOPIX(합성H)는 614억 원으로 연초(102억 원) 대비 512억 원 증가했으며, KODEX 일본TOPIX100도 463억 원으로 연초(93억 원)에 비해 370억 원 늘었다.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일본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는 연초 대비 27%가량 올랐다. 특히 엔저 현상이 장기화된 것도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불을 붙였다. 최근 원·엔 환율이 900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6월 8년여 만에 100엔당 800원대로 하락하는 등 올들어 엔화 가치는 바닥에 머물러 있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은 최근이같은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분위기에 대응해 일본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29일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국제 상장지수펀드(ETF)를 엔화로 투자할 수 있는 '엔캐리랩'을 신규 출시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엔화 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증권(ETN) 6종을 지난 10일 신규상장했다.

자산운용사들도 일본 관련 ETF를 출시하고 있다. 이날 한화자산운용은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선보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7일 일본 로봇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TIGER글로벌AI&로보틱스INDXXETF를 신규상장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본 관련된 금융 상품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경제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하반기 일본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재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일본 증시는 가격조정이 아닌 속도 조정 단계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 실적 저점 통과 및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연 후반기에 걸쳐 상승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예탁원, 상장주식 49개사 의무보유 해제

내달 중 2억7482만주 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주식 총 49개사 2억7482만주가 내달 중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 7743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2개사

1억973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현대무비스(3748만주), 실리콘투(2706만주), 에스엠백셀(2410만주) 순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싸이버원(56.16%), 실리콘투(44.85%), 프롬바이오(42.46%) 등이다.

/원관희 기자 wkh@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은 지난 28일 현지 사립 병원인 PT Charlie Hospital Semarang의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상장을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신한證, 인니 현지병원 RSCH 상장 추진

RSCH 상장 통해 55억 자금 조달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은 지난 28일 현지 사립 병원인 PT Charlie Hospital Semarang(RSCH)의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상장을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RSCH는 주당 공모가 115 루피아로 발행해 609억 루피아(약 55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인 35%까지 상승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3.9% 상승한 131루피아로 마감했다.

이번 기업공개(IPO)로 조달된 자금은 2024년 3월에 완공 예정인 Charlie Hospital Demak의 건설 자금 및 신규 의료 장비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높이 평가

해 줄기세포 치료 등 한국 병원과의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훈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이번 RSCH IPO를 포함하여 올해 총 8건의 IPO를 주관해 성공리에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상장을 완료했다"며 "다수의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IPO 상장을 추가로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증권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졌다"며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와 내재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다양한 금융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 인도네시아 현지 IB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가을 분양시장 개막... 이달 3만 가구 공급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 1만1053가구
지난달 물량 대비 2배 가량 늘어나
경기 4168가구 8곳으로 가장 많아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투시도.

가을 아파트 분양시장이 본격 닦을 올린다.

3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중 전국 35곳에서 3만68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만663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1만1053가구(53.5%)며, 지방은 9610가구(46.5%)다. 이는 지난달 물량(1만1367가구)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다만 서울 등 재건축·재개발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이슈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사가 분양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분양예정 물량이 실제 분양 실적보다는 줄어든 수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168가구(8곳, 20.2%)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3712가구(10곳, 18%), 광주 3280가구(3곳, 15.9%) 등의 순이다. 특히 서울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가는 가운데 월별로는 올해 최대 물량이 분양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가을 성수기를 감안하면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알짜 단지들이 많이 분양되는 달"이라며 "특히 서울에서는 10곳이나 분양되고,

물량도 많다"고 말했다.

주요 단지로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이문3구역 재개발)20~139㎡, 4321가구 중 164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문·휘경뉴타운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호반건설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호반써밋 개봉'(개봉5구역 재건축) 49~114㎡, 317가구 중 19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권에 있는 구로구 첫 호반써밋 아파트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DL이앤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동탄2신도시A94블록) 1227가구를 후분양아파트로 내놓는다. 이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아

파트로 전용면적 74~84㎡ 907가구는 공공, 전용면적 95~115㎡ 320가구는 민간 분양으로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부산 남구에 자리한 '더비치 푸르지오 써밋'(대연4구역 재건축) 59~114㎡, 1384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9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우건설의 고급 주거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비수도권에 최초로 적용된 단지다.

포스코이앤씨는 충북 청주시에 지어지는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99~127㎡, 644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LG에너지솔루션, 예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기업이 모여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속해 직주근접이 뛰어나다.

/이규성 기자 peace@

임플란트·레진 등 치과보험 사기 '주의'

설계사와 치과병원 공모해 사기

설계사와 치과병원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치아보험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환자를 가담시키는 일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급증했고,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사기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설계사(GA 대리점)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 보험사기 형태로까지 발전하

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치과보험 사기 사례를 보면 특정 설계사들이 SNS, 전화 등으로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3~4개의 치아보험에 가입시킨다. 공모 병원에서 충치 상태를 진료기록 없이 사전 진단하거나 건강검진시 시행한 치아점검 결과를 활용해 보험사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수취한다.

보험금 감액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공모한 치과병원에 환자가 내원해 치료를 받고, 레진 등 충전치료 개수를 부풀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보험사에 청구해 받은 보험금 일부는 설계사가 병원 치료비 후납과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휘발유값 2000원 돌파 ‘눈앞’... 당분간 高유가 지속될 듯

유류세 인하 연장에도 2달전 대비 휘발유 가격 177원, 경유 253원 ↑

“美, 산유국 제재 해제 가능성 등에 유가상승 경향성 바뀌기 어려워” 일부 주유소 기름 비축 나서기도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유·휘발유 소비량이 크게 늘었다. 산유국들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침체까지 기름값에 영향을 주고 있어 고유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일부 주유소의 ‘사재기’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31일 오픈넷에 따르면 전국평균으로 휘발유가 1746.07원, 경유가 1632.93원을 기록했다. 2달 전인 7월 1일 휘발유가 1569원, 경유가 1379원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제품당 177원, 253원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기름값이 최근 크게 올라 사재기에 나서려는 이들이 늘면서 국내 경유·휘발유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는 모습. /뉴시스

이 없었더라면 더 가파르게 상승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가까운 시일 내에 2000원대 주유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유 가격은 더 빠르게 올라갔다. 한 달 전과 비교해 휘

발유가 98원 올랐다면 경유는 172원 올랐다. 전국 최고가는 휘발유 2773원, 경유 2755원을 돌파했다.

이미 유가 상승과 수요 최고치 경신은 예견된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8월 월간 보고서에서 세계석유수

요가 6월에 사상 최고치인 1억 300만b/d(하루 사용 배럴)에 달하며 8월 수요가 고점을 재차 경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현재 생산정책을 유지할 경우 3~4분기 석유 재고가 각 220만b/d, 120만b/d 속도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며 유가 상승 가능성을 점쳤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838만4000배럴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756만1000배럴을 소비했던 6월과 비교해 82만3000배럴 증가한 수치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가능성이 있고, 여름 드라이빙 시즌도 끝나가고는 있다”면서도 “오펙의 감산 기조는 여전하고 이에 따라 기름 수요가 타이트하게 이어지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의 경향성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주유소들이 기름이 비싸질 것을 대비해 기름 비축에 나서자 ‘사재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업주 역시 제품을 비축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공급가가 일선 주유소에 반영되는 것은 통상 1~2주, 길면 2~3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기에 주유소는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재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사재기라는 표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탱크를 주유소에 추가로 구입해서 석유 제품을 더 많이 비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혹여라도 국제유가나 기름 가격이 어떠한 요인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축을 결정할 주유소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경제원리”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Q 르포 | 매년 100만명 찾는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 가보니

“평일도 붐벼... 로봇이 따르는 맥주 인상적”

올해로 11주년... 오는 3일까지 개최 ‘대프리카’ 열기에도 참가자 기대감 치킨·맥주 브랜드 80여곳 참여 오비맥주 카스·한맥 ‘공식 파트너’

엔데믹 전환 후 맞는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지난 10년의 역사를 지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더 뉴 퍼스트(The New 1st)’를 슬로건으로 삼고 30일 개막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늦은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달서구 두류공원 일원과 동구 평화시장에서 열린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혀를 내두른다는 ‘대프리카’ 대구의 뜨거운 열기는 이날 내린 비 때문에 다행히 한풀 꺾였다. 개막식은 오후 7시 30분이었지만, 행사를 앞둔 오후 5시부터 공원 내 잔디광장에는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홍보 영상 상영과 함께 DJ들의 식전축하공연이 일찍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흥을 돋웠다.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에 습도가 높아 불쾌감이 높아졌음에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번졌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대표적인 여름축제다. 80여 개 치킨·맥주 브랜드가 참여하는 전국의 치맥 축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축제다. 오비맥주 카스와 한맥은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 공식 맥주 파트너로 참여했다.

두류공원 메인홀에 위치한 ‘카스 부스’에서는 맥주로봇 ‘비어박스’가 따라주는 카스와, 출시 4주 만에 200만 캔 판매 돌파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정판 ‘카스 레몬 스위즈’를 만나볼 수 있었다.

최근 수지를 새로운 광고 모델로 선정해 화제를 모은 한맥도 메인 파트너



오비맥주 카스와 한맥이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에 공식 맥주 파트너로 참가했다. 배하준 사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팝 아티스트 ‘임지빈’ 작가와 협업한 ‘대형 카스 베어 벌룬’ 포토존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비맥주

로서 대규모 맥주 부스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한맥 생맥주 ‘더블 스무스 드래프트’도 맛볼 수 있다.

치킨 브랜드로는 교촌치킨을 비롯해 치맥킹, 또래오래, 갯튀김후라이드, 아라치치킨, 와버트치킨, 보드람치킨의 본사가 참가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만큼 대구시는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을 동원했다.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사고와, 휴시 모를 주취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행사장 곳곳에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흥준표 대구시장이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에서 100만이 모이는 축제는 많지 않다”며 “치맥페스티벌은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껏 즐겁게 놀고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가길 바란다”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전 좌석 매진으로 큰 관심을 끈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는 전년 대비 2

배 규모인 1088석으로 늘렸음에도 방문객들로 붐볐다.

행사장을 찾은 대학생 커플은 “비도 오고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며 “치킨도 맛있고,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맥 생맥주와 로봇이 따르는 맥주도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는 부모님이상 와서 한번 더 축제 분위기를 즐기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역 축제 후원으로 해당 지역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카스의 음용접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 한맥의 부드러운 생맥주 경험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오비맥주 측은 여름 축제 시즌이 지나고 추석과 연말이 다가오면서부터 카스는 ‘함께’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담아 친구, 연인, 가족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맥의 경우 한맥 생맥주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스무스하우스’를 전국 5곳에 완공 예정이며, 이외에도 한맥 생맥주 사업 업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오비맥주 카스는 유명 팝 아티스트 임지빈 작가와 협업한 ‘대형 카스 베어벌룬’ 조형물과 함께 분수대 전망을 바라보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카스 물명존’, 터치스크린으로 즐기는 ‘카스 x 텐텐 게임 플레이 존’,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마우스 작가와 이슬로 작가가 협업한 ‘초대형 카스캔 포토존’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해 축제의 즐거움을 극대화한다. ‘카스 브랜드 데이’로 지정된 9월 1일과 2일은 신나는 EDM 파티와 함께 조현아, 비와이, 키드밀리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대구=신원선 기자 tree6834@



한국지엠 사장, 보령공장 방문 ‘소통경영’

한국지엠 사장, 보령공장 방문 ‘소통경영’

한국지엠 신임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30일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GM 보령공장을 방문해 6단 자동변속기 600만 대 생산 돌파 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직원들과 소통했다. 공장 설립 이후 27년간 노사 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단 한차례의 파업 없이 높은 생산성과 뛰어난 품질 관리를 만들어 낸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난 2007년 GM 최초로 6단 자동변속기(GF6) 양산을 시작한 보령공장은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 지표인 하버 리포트에서 2020년까지 6단 자동변속기 분야에서 최고의 생산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지엠

현대차그룹, 해외진출 협력사 3000억 지원

신보와 맞손, 동반진출 지원 협약 1.5%p 우대금리 적용 L 특례보증

현대자동차그룹이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해외 동반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시중은행에서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현대차그룹은 31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티언(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 해외 동반진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현대차그룹은 보증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150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차그룹의 특별출연금을 기반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당 신용보증 한도는 70억원(일반보증 기준)에서 최대 300억원으로 상향되며, 보증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된다. 보증 비율은 90%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는 0.5%로 우대 적용하며, 은행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선정한 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면, 기업은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유동성을 추가 확보해 해외 사업 운용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심현구 신보 전무이사,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신용보증기금과 국내 시장의 수소·전기차 부품 협력사,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업체 등의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 부품협력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미래 자동차 부품 생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中 수출 부진·글로벌 인플레이션 韓 기업 수출시장 다변화로 대응”

산업부, 하반기 수출 진출전략 설명회
KOTRA,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16개국 40개 유망 틈새 품목 제시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뉴스시스

정부가 하반기 수출환경이 쉽지 않다고 보고 수출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수출 시장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31일 페이토 강남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수출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실장은 설명회에 참석해 “중국 부동산 위기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 통화 긴축 등으로 하반기 수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수출환경 변화와 기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시장 다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수출기업 100여개사가 참석했으며, KOTRA의 지역별 담당자가 미국·유럽연합(EU), 중동, 아세안 등 주요 시장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과

EU는 첨단산업 제조 선진국으로 중국은 다각화된 소비시장으로 중동은 탈석유 시대에 대비해 미래 산업을 키우는 나라로 소개됐다. 또 규제변화, 인구변화 등 다양한 시장변화 상황에서 수출 기회로 연계될 수 있는 16개국 40개 유망 틈새 품목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대중국 수출 부진의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등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바이어 초청 박람회 △시장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우대 △주요 시장별 유망 품목 무역사절단 파견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또 지난 7월 킷오프 회의로 시작된 ‘무역구조대 전환 포럼’을 통해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방안을 비롯해 안정적 무역구조로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 내 숙박시설 중 하나인 하우스형-카라반(20~35㎡)의 모습.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에 ‘탄소중립형 야영장’ 4호 등장

국립공원공, 사기막 야영장 21일 개장

국립공원공단이 31일 북한산국립공원에 조성된 탄소중립형 사기막(경기 고양 덕양구 사기막골) 야영장을 오는 9월21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만 야영장 출입이 가능하다.

국내 탄소중립형 야영장을 운영 중인 월악산과 설악산, 소백산에 이어 북한산이 4호를 기록하게 됐다.

공단 측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은 무공해차(수소·전기차)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이 허용된다. 그 외 차량은

북한산성 제1주차장 등에 주차한 뒤 야영장을 오가는 무료 전기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야영장에서는 일회용품발생저감을 위해 다회용기를 유료로 대여한다. 또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그릴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다회용기는 2인세트 대여가 5500원, 4인세트가 9900원이다.

사기막 야영장은 부지면적 3만5000㎡에 △일반 야영지 27동 △체류 기반 시설 43동 △코인사위장 1개동 △개수대 3동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조선업 현장애로 해소 적극 나서

현재 총 28건 접수해 20건 해소
지자체 협력·박람회 개최 등



/유도이미지

정부가 조선업계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8건의 애로를 접수받아 20건을 해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A사의 경우 선박 광폭 화물(폭 3.4m 이상)의 주간 운송이 불가능해 야간 작업으로 인한 안전 위험, 화물 운송 지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해 신호수 배치, 안전속도 준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조건부 주간 운송 허가’가 발급되도록 지원했다.

중소기업인 B사의 경우 기업 자체적인 안전교육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건의를 냈고, 산업부는 내년에 40억원을 들여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C사 등 2개사가 청년층의 조선업계 관심이 저조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애

로를 제기한데 대해 산업부는 올해 거제, 목포, 울산에서 세차례, 경기와 대구에서 두 차례 각각 국내 청년과 외국인 청년 대상 조선업 박람회를 개최, 현재 내국인 면접에서 185명이 합격했다. 외국인 취업상담도 204건 진행됐다.

이밖에 산업부는 정부과제 수행에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과다하다는 애로에 대응해 연차보고서 작성항목 간소화, 연차별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의무 폐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중소조선해양기자재업체 판로개척 지원 애로에 대응, 격년 주기로 국내

에서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MARINE)을 개최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비와 임차료 등 지원을 통해 전시회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용 곤란 사항은 건의한 해당 기업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는 지역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과 KOMERI 누리집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3배 늘어

내년 예산 43억·대상자 3만명 확대

내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올해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 각각 2배, 3배로 크게 증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해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2023년~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각각 43억원, 3만명으로 늘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본사업 궤도로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기업·투자자 정보교류 활성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ASSIST
민간자본 농식품 산업 유입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투자 관련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9월1일부터 농식품 산업에 특화된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ASSIST는 ‘사업설명(IR) 자료’, ‘한국평가데이터 검증 재무정보’, ‘투자유치 희망액’, ‘투자 선호·발굴 희망 분야’ 등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기업과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자의 정보를 일괄 등록하고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

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과 투자자가 자신이 원하는 투자 제안을 상대방에게 직접 할 수 있도록 ‘투자 매칭 서비스’ 기능도 마련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최근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산업동향, 우수기업 등에 대한 투자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며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농식품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정보교류가 확대되고 더 많은 민간 자본이 농식품 산업으로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실내용 바닥재 ‘압입량 시험’ 폐지

산업부, 국표원 안전기준 개정고시
KC 평균 시험비용 10% 절감 예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을 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주요 개정 사항은 ‘압입량 시험’ 폐지다. 압입량 시험은 건

축물 기초바닥의 거친 면에 실내용 바닥재를 시공할 때 바닥재가 잘 안착되도록 하고, 집기 등이 놓인 후 이동할 때 눌리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압입량 시험은 시공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돌가루 등이 혼합된 딱딱한 소재의 신제품 출시가 많아지고 있어 시장상황에 맞

게 해당 시험 항목을 안전기준에서 폐지했다.

이를 통해 업계는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확인신고(KC)에 필요한 평균 시험비용(약 35만원/건)의 약 1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시장 상황에 맞게 안전기준을 운영해 업계 부담이 완화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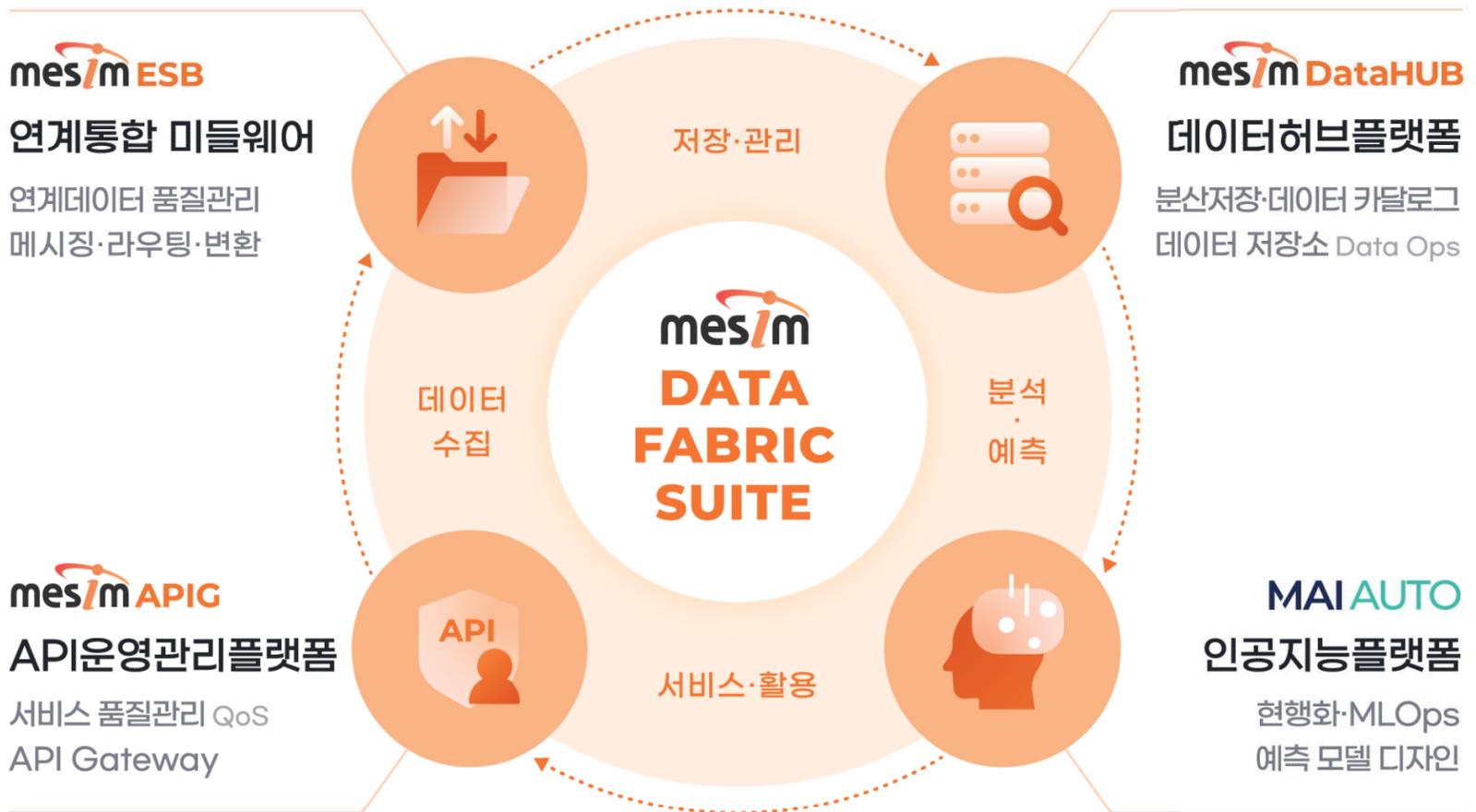
/세종=한용수 기자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작년 대학생 1명 교육에 1850만원 지원... 전년비 8.7% 증가

교육부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학교, 교육여건 조성 위해 투자
인건비·운영비·장학금 등 포함
장학금 연 358만원... 7.4% 올라
대출 이용 0.4%·연구비 8.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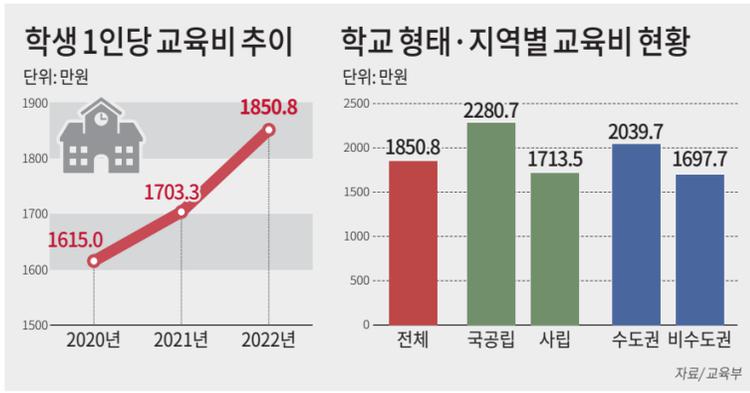
지난해 대학들이 대학생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1인당 교육비는 18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생 한 명이 받은 연 평균 장학금은 358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7.4% 증가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제국)는 31일 총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전임교원 연구비 등을 분석한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학생 1인당 교육비 전년 비 8.7% ↑ ...연간 장학금 학생 1인당 358만

지난해 일반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850만8000원으로 1703만3000원이던 1년 전보다 8.7%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



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을 포함한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2280만7000원으로 전년(2058만6000원)보다 10.8%, 사립대학은 1713만5000원으로 전년(1589만9000원)보다 7.8%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2039만7000원으로 전년(1868만8000원)보다 9.1%, 비수도권대학은 169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전체 장학금 총액은 4조7822억원으

로 전년보다 2470억원(5.4%) 증가했다.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외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이 3조408억원으로 전체 63.6%를 차지했으며, 교내 장학금은 1조5822억원(33.1%)으로 집계됐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지난해 장학금은 연간 358만3000원으로 333만6000원이던 1년 전보다 24만7000원 늘었다.

설립 형태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은 290만9000원으로 전년(271만5000원)보다 19만4000원(7.1%), 사립대학

은 378만4000원으로 전년(351만9000원)보다 26만5000원(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학은 351만원으로 전년(329만8000원)보다 21만2000원(6.4%), 비수도권대학은 363만7000원으로 전년(336만3000원)보다 27만4000원(8.1%) 많은 장학금을 지급했다.

◆ 재학생 12.9% 학자금 대출 이용... 수도권·사립대 이용률 높아

지난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1만1093명으로 전년보다 1676명(0.4%) 증가했다.

이를 전체 재학생 수로 나눈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2.9%로 전년 대비 0.2% 높아졌다. 등록금이 비싼 편인 사립대(13.8%)가 국공립대(10.0%)보다, 수도권(13.6%)이 비수도권(12.3%)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는 16만1591명으로 전년보다 1만425명(-6.1%) 줄어든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이용한 대학생은 24만9502명으로 같은 기간 1만2101명(5.1%) 증가했다.

◆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10%가량 증가...교비회계 적립금 8조 규모

지난해 교수들이 연구 목적으로 정부나 민간, 교내 등에서 받은 연구비는 총액이 7조9517억원으로 전년(7조3242억원) 대비 8.6% 증가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1억116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983만4000원(9.7%) 증가했다. 국공립(1억4313만원)이 사립(1억9만원)보다, 수도권(1억5079만원)이 비수도권(8020만원)보다 많았다.

지난해 사립 일반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총 8조3518억원으로 1년 전과 견줘 2165억원(2.7%) 늘었다.

적립금은 건축, 장학금, 연구, 교직원 퇴직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예치해 두는 자금이다. 기금 용도별로는 건축이 46.7%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목적(26.7%) ▲장학(16.8%) ▲연구(8.7%) ▲퇴직(1.0%) 순이었다.

전체 사립대는 지난해 기부금 총 6788억원을 모금해 1년 전보다 1051억원(18.3%) 늘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양천구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서부트럭터미널 일대 계획안 승인
서남권 지역 새로운 랜드마크 전망
2025년 착공해 2028년 준공 목표

서울시는 31일 양천구 신정동 1315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하고 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물류 시설뿐만 아니라 유통 효율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로, 지난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시는 "서부트럭터미널 일대는 노후화된 물류시설로 인해 지역의 흥물로 인식돼 온 곳으로, 사업 이후 지역 발전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며 "물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감도. /서울시

류·판매 및 주거시설이 복합된 도시형 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주민 편의시설도 유치할 수 있게 돼 서남권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부트럭터미널 일대(총면적 약 10만4244㎡)에는 지하 7층

~지상 25층 규모로 첨단물류시설이 조성된다. 물류시설, 지원시설(업무·주택 등), 공공기여시설, 상류 및 지원시설(상업·여가 등) 등으로 이뤄진다.

물류시설에는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시설, 풀드체인 시설, 지역상생형 공유창고 등을 도입한다. 상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상류시설에는 판매시설을 제공하고, 지원시설에는 지역주민의 여가·휴식시설, 금융·의료 시설 등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창업지원시설(5421㎡), 신정체육센터(1만7050㎡), 도심형 주택 984세대(공공임대주택 92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시는 2025년 착공해 2028년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ik1@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해당 교사가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학교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교사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31일 오전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에 내몰렸다고 유족을 대신해 말했다. /뉴스1

인천경제자유구역, 전국 9개 성과평가서 최고등급 받아

5년 연속 S 등급 달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FEZ)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이며 투자유치·혁신성장 등에서 IFEZ가 많은 성과를 이뤄내는 등 우리나라 FEZ(경제자유구역)를 선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는 평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9일 산업부 제1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2022년도 FEZ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심의 결과, IFEZ가 부산·진해, 대구경북과 함께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

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FEZ 평가는 최초로 9개 FEZ가 모두 평가를 받았고, 전년도까지는 광주와 울산 FEZ 등 신규 지정 FEZ는 제외됐다.

IFEZ는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다각적인 투자유치성과 창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청라국제도시는 수소·로봇과 미래차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관광·레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했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기업 싸토리우스 유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3대 바이오 기업·글로벌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유치,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 구

축과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FEZ 성과평가는 혁신성장·외자유치·도시계획·재무회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전국 FEZ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진행하고 각 FEZ를 직접 방문, 분야별 업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및 기관장에 대한 리더십 면담 등의 절차로 이뤄졌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IFEZ가 인천의 발전을 선도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유치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인하대 졸업생 3명, 나란히 국립대 교수 임용

각 전남대·충북대·부경대로 부임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화학공학과 졸업생들이 동시에 국내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인하대 화학공학과 졸업생 3명은 9월 1일자로 각각 전남대, 충북대, 부경대 교수로 임용됐다.

김용태 박사(화학공학과 02학번)는 인하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독일 마틴 루터 대학교(Martin-Luther University Halle-Wittenberg)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5년 동안 SCI급 논문 15편 등을 발표했으며, 최근 전남대 화학생명공학과(여수) 교수로 임용됐다.

장인준 박사(생명화학공학과 05학번)는 인하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

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에서 박사 후 과정 연구자(Post-Doc·포닥)로 근무했다.

포닥 기간 동안 수전해와 연료전지용 촉매 개발과 물리적 증착법을 이용한 전극 소재 합성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진행했으며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김신규 박사(화학공학과 07학번)는 인하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델라웨어 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속-산화물, 다공성 물질의 촉매 개발과 반응공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했고, 부경대학교 공업화학·고분자공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이현진 기자

유통기업 총출동... 中企 돕고, 내수진작 위한 큰 장 열렸다

27일까지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신세계백 1961소녀마켓 팝업 오픈 청년작가·디자이너 플라마켓 운영

롯데온 백년가게 알리기 프로모션 SSG닷컴 1.3만종 中企상품 소개 켈리 먹거리·가전 등 최대 57%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 기UP, 지역경제 기UP,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소상공인 기UP' 등 글귀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오는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하반기 행사가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동행축제는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특별히 명절 선물세트 상품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동행축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생 판촉 행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2회 열린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대부분이 참여해 2만 4000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한다.

쿠팡, 롯데온, SSG닷컴,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소유통은 별도 기획전을 마련하고 동행축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위메프, 티몬, 11번가, 그림

등 12개 라이브방송 플랫폼도 동행축제 기간 동안 87회 라이브방송도 진행한다. TV홈쇼핑과 과빙T커머스는 입점 업체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동행축제 참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신세계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도 점포 공간에 별도 기획전을 마련하고 엄선한 중소기업 상품을 소개한다.

동행축제는 각사별 행사 일정이 상이하고 상품이 달라 동행축제 상품 쇼핑시 미리 기획전 개최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롯데온은 이번 동행축제 기획전에서 특별히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협업 플

랫폼으로 선정돼 진행하게 됐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각 30년, 15년 이상 명맥을 이어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높게 평가해 공식 인증한 점포다. 롯데온은 기획전에서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알리기 위한 다양한 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13개 전 점포에서 동행축제를 진행하며 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제품을 소개한다. 강남점은 신진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제품을 소개하는 '1961 소녀마켓' 팝업스토어를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지하 1층에서 연다. 광주점에서는 광주 지역 내 잠재력이 있는 청년 신진

작가의 판로 개척을 위한 '광주 청년작가 아트 플라마켓'이 9월 6일까지 운영된다.

더불어대구점에서는 대구지역 신진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신진 디자이너 플라마켓'을 열어 27일까지 패션, 잡화, 악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대전신세계와 타임스퀘어점, 천안아산점에서는 지역 업체 및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추석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

SSG닷컴은 동행축제에서 670여개사가 판매하는 1만3000여종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소개하며,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추석을 앞둔 만큼 대표 신선, 가공 선물세트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소상공인x구독경제' 전문관에서는 정기구독이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고, 맛집 소상공인 추천 기획전도 운영한다.

켈리도 '황금년 동행축제' 기획전을 열고 먹거리부터 생활, 가전 제품까지 400여개 상품을 최대 57%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초특가' 상품을 소개한다. 최초특가란 켈리몰에서 처음으로 해당 상품을 할인하여 선보이거나 역대 최대 할인이 적용된 상품으로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롯데마트·슈퍼 아시아나 마일리지 이벤트

롯데마트와 슈퍼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1등 당첨자에게는 미주, 대양주, 유럽을 비즈니스석으로 왕복할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 10만 5000마일리지를 증정한다.

행사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롯데마트나 슈퍼에서 행사 기간 중 1만원 이상 장을 본 후 롯데마트 앱(APP) '롯데마트GO'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응모가 완료된다.

1등 10만5000마일리지(1명) 이외에 2등은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석으로 동남아를 왕복할 수 있는 6만마일리지(1명), 3등은 비즈니스석으로 일본, 중국, 동북아를 왕복할 수 있는 4만5000마일리지(1명), 4등은 이코노미석으로 일본을 왕복할 수 있는 3만마일리지(3명)를 증정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삼성웰스토리 레인보우로보틱스와 MOU

삼성웰스토리가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단체급식에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족보행 로봇을 비롯해 로봇팔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의 대표적인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조리로봇 전문코너 웰리봇에 이어 급식 조리 최적화된 로봇팔을 추가 개발하고 이를 급식 사업장에 도입, 확산하는데 있어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 동반성장·환경보전 등 '체계적 사회공헌' 추진

사회공헌 브랜드 '물결 W.A.V.E' 인권존중 등 4개 전략방향 수립 석촌호수 수질개선 등 활동 펼쳐

롯데칠성음료가 '사람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라는 미션 실천을 위해 그동안 다양하게 운영되어 왔던 대내외 활동을 사회공헌 브랜드 '물결; The W.A.V.E 4Re:Green EARTH'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물결은 생명의 원천이자 롯데칠성음료 제품의 본질인 물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변화의 움직임에 대한 가치를 담아냈다.

롯데칠성음료는 물결을 뜻하는 영어 웨이브(WAVE)의 알파벳 표기를 하나씩 따서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Win-win with stakeholder) ▲인권존중문화의 발전(Advance of human right) ▲환경보전 활동(Vital action for earth) ▲나눔 문화의 확산(Expansion of sharing culture) 등 4가지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상생을 목표로 하며, 현재 제주 농가의 가공용 감귤 구매, 석촌호수 수질개선 프로젝트 참여, 소상공인 카페 메뉴의 RTD 신제품 출시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권존중 문화의 발전'은 선도적 인권 경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영업 차량을 활용한 실종아동찾기 캠페인, 보행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신발 제작, 슈퍼블루마라톤 후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환경 보전 활동'으로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선도하기 위해 무라벨 제품 확대 및 페트병 경량화, EBS환경교육 업무협약,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기부 등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눔 문화의 확산'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나눔 경험과 가치의 내재화를 위한 것으로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지원, 지역 장학사업, 긴급재난상황시 이재민과 구호 인력을 위한 음료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LG생전 '천기단' 리뉴얼... 中 공략 가속

상하이서 '더후 천기단 아트 페어'



LG생활건강은 새로 선보이는 천기단의 글로벌 홍보를 위해 30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탱크 상하이 아트센터'에서 '더후 천기단 아트 페어 인 상하이' 행사를 열었다.

LG생활건강은 럭셔리 궁중 화장품 브랜드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이하 더후)의 대표 제품인 '천기단'을 리뉴얼하고 오는 9월 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한다. 더후 천기단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제품 중 하나로 2010년 1월 첫 출시 이후 13년 만에 리뉴얼을 단행했다.

LG생활건강은 새로 선보이는 천기단의 글로벌 홍보를 위해 30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탱크 상하이 아트센터'에서 '더후 천기단 아트 페어 인 상하이' 행사를 열었다. LG생활건강이 세계 최대 뷰티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대규모 브랜드 홍보 행사를 개최한

건 2019년 '더후 궁중연향 in 상하이' 이후 약 4년 만이다. LG생활건강은 이번 천기단 리뉴얼을 계기로 중국 고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침체된 뷰티 사업의 반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정관장 "홍삼오일로 전립선 건강 챙겨요"

'홍삼오일 알엑스진 클린' 출시

정관장이 '홍삼오일 RXGIN CLEAN(알엑스진 클린)'을 출시하고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홍삼오일 알엑스진 클린'은 식약처로부터 전립선 건강 개별인정형 원료로 공식 인정받은 홍삼오일을 주원료로 한다. KGC인삼공사는 2018년부터 5년간 홍삼오일에 대해 연구한 결과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인체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받았으며,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홍삼오일 알엑스진 클린'은 홍삼오일을 추출하기 위해 최적화 된 초임계

공법을 이용해 유효성분을 극대화한 것이 강점으로, 홍삼 1뿌리에서 단 0.05g만 추출되는 귀한 소재다. 소형 캡슐 형태로 만들어져 목 넘김이 편하며, 1일 1회, 2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 '홍삼오일 알엑스진 클린' 캡슐(502mg)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삼 10뿌리가 필요하다. 홍삼오일을 추출하는 초임계 공법은 55~65°C의 저온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오일을 추출하는 최첨단 방식으로 잔여물 없이 정제돼 더 높은 순도의 오일을 추출할 수 있다.

KGC인삼공사는 전립선비대유도모델을 활용한 동물시험에서 홍삼오일의 섭취가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성장인자들을 조절하여 전립선의 무게와 두께를 감소시킴을 규명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 'ESG 경영 선포식' 열어

롯데바이오로직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본격화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0일 롯데월드타워 113층 EBC센터에서 'ESG 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탁월한 성과 제공'이라는 ESG 비전 하에, 고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인권경영' 현장과 환경적 가치를 경영 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환경경영' 현장을 선포했다.

또 'ESG 중장기 로드맵'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주요 사업장의 환경 및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확보하고 탈탄소 계획을 마련하는 등 연도별 실행 전략을 밝혔다. /이세경 기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 'H-온드림 데이' 행사

15개팀 기업가 정신 공유... 윤석원 대표 'H-온드림 어워드'

(테스트웍스)

사회문제 해결 위한 사업 발표
"지속 가능한 사회 조성 앞장"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난 30일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H-온드림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사는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제현주 인비저닝 파트너스 대표의 기초강연과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장 신현상 교수,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대표, 양경준 크립톤 대표,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 인큐베이팅 트랙 5팀과 액셀러레이팅 트랙 10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발표가 이뤄졌다. 올해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11기로 선발된 임팩트 스타트업 40개 팀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난 8월 30일 개최한 'H-온드림 데이'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H-온드림 어워드'와 사업 발표 우수 팀도 선정됐다. 'H-온드림 어워드'는 지난 10년간 선발된 H-온드림 펠로 중 사회혁신 기업가로 사회문제 해결 앞장서는 도전정신과 헌신을 보여준 기업가에 수여되는 상으로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가 수상

했다. 인큐베이팅 트랙 우수 팀 대상은 타이거새우 부산물을 활용한 팟푸드 개발팀 '엠에프엠'이, 액셀러레이팅 트랙 우수 팀 대상은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팀 '더데이원랩'이 각각 차지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 10년간의 임팩

트 스타트업 지원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가를 육성할 것"이라며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동국대-한국화웨이, ICT 인재양성 맞손

동국대학교는 30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한국화웨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동국대에서 한국 ICT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유재웅 동국대 총장과 한국화웨이 발리안 왕 CEO가 협약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공영홍소핑-사회복지협, ESG 상생 협약

공영홍소핑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추가가 나섰다. 31일 공영홍소핑에 따르면 조성호 대표(왼쪽)는 전날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과 ESG상생파트너십 협약을 맺고 ESG 실천에 뜻을 같이 했다. /공영홍소핑

LG, Z세대 크루 '일·놀·먹·쉬' 소통

(일하고 놀고 먹고 쉬고)

LG크루 3기 수료... 가전 16종 체험 '무드업 식탁' 등 미래 사업 제안

Z세대 'LG크루'가 LG전자 쇄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LG전자는 지난 30일 LG크루 3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LG크루는 LG전자 미래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임무를 맡은 Z세대다. 지난 4월 16명으로 구성된 3기 가 이번 수료식으로 5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LG크루는 LG전자 CX센터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고 놀고 먹고 쉬는(일·놀·먹·쉬) 등 4개 영역에서 좋은 경험을 고민했다. LG전자 가전 16종을 직접 써보고 제품과 서비스를 재해석했다.

지난 23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좋은 경험 콘서트'와 '요즘 애들의 재미가전'을 통해서는 꽃다발 대신 티운 꽃 화분을 선물하자거나, 스탠바이미로 면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등 색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Z 멋대로 일하기'를 주제로 발표한 권기경(23)씨는 "Z세대가 책임감이 없고 이기적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Z세대는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누구보다 책임과 소명을 다해 몰입



LG크루 구성원이 지난 23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좋은 경험 콘서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Z세대의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세대"라며 "Z세대에게 일의 소명을 이루는 과정이자 자아실현의 수단"이라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을 밝혔다.

사진부터 찍고 음식을 먹는 Z세대의 문화를 '찍먹'으로 소개한 김마로(25)씨는 도어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무드업 냉장고에서 착안해 '사진 찍기 좋은 조명을 만들어 주는 '무드업 식탁'은 어때냐"고 제안했다.

LG전자 CX센터장 이철배 부사장은 "LG전자가 Z세대의 삶에 관심을 갖고 친하게, 가깝게 지냈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고객경험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시대에 맞는 회사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한일포럼상' 수상

한일 관계개선 노력 인정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사진)이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조 명예회장은 3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1차 한일포럼에서 '제8회 한일포럼상'을 수상했다.

한일포럼상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한 인사나 단체에 수여한다. 공로명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고후 이수현 씨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조 명예회장은 한일포럼 창립멤버로, 민간 외교관으로 포럼 발전에 기여



하고 한일경제인협회 회장과 한일재계회의 대표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헌신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수상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대리했다. 조 회장은 "한일포럼이 설립 됐을 당시에는 양국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큰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한일포럼에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용기자



아시아나, 유기견 입양센터 정기 봉사

아시아나항공이 유기견 입양센터에서 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11명은 지난 30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시(고양시 유기동물 거리입양 캠페인) 애니밴드'에서 견사 청소, 산책, 낙후 시설 보수 등의 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백종훈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금호석유화학)

"자원 선순환 실천 기업 만들 것"

금호석유화학은 백종훈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 속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자는 취지로 지난 2월 환경부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다.

백 대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



다"며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개발하고 자원 선순환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올바른 사내 재활용 분리수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타이어뱅크,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

타이어뱅크가 자원순환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수집된 옷과 책, 생활용품 등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이 지난 30일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에 물품 기부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뱅크

오늘의 날씨

9월 1일 (금)
음력: 7월 17일

수도권 날씨
20~3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02 | 해질 / 19:02

연천 17/29, 동두천 17/29, 가평 17/30, 파주 17/29, 서울 20/30, 양평 18/30, 인천 20/28, 수원 19/30, 용인 19/30, 평택 17/30, 백령도 21/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JW그룹, 김동연·안미홍씨 성천상 시상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의학술복지재단은 지난 30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과천사옥에서 제11회 JW성천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부부 의사인 김동연(글로벌케어내과), 안미홍(누가광명의원)씨에게 상금 1억원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김동연·안미홍 씨는 JW성천상 제정 이래 선정된 첫 부부 수상자이다.



이경하 중의학술복지재단 이사장(JW그룹 회장)과 제11회 JW성천상 수상자 김동연·안미홍 씨, 이성낙 JW성천상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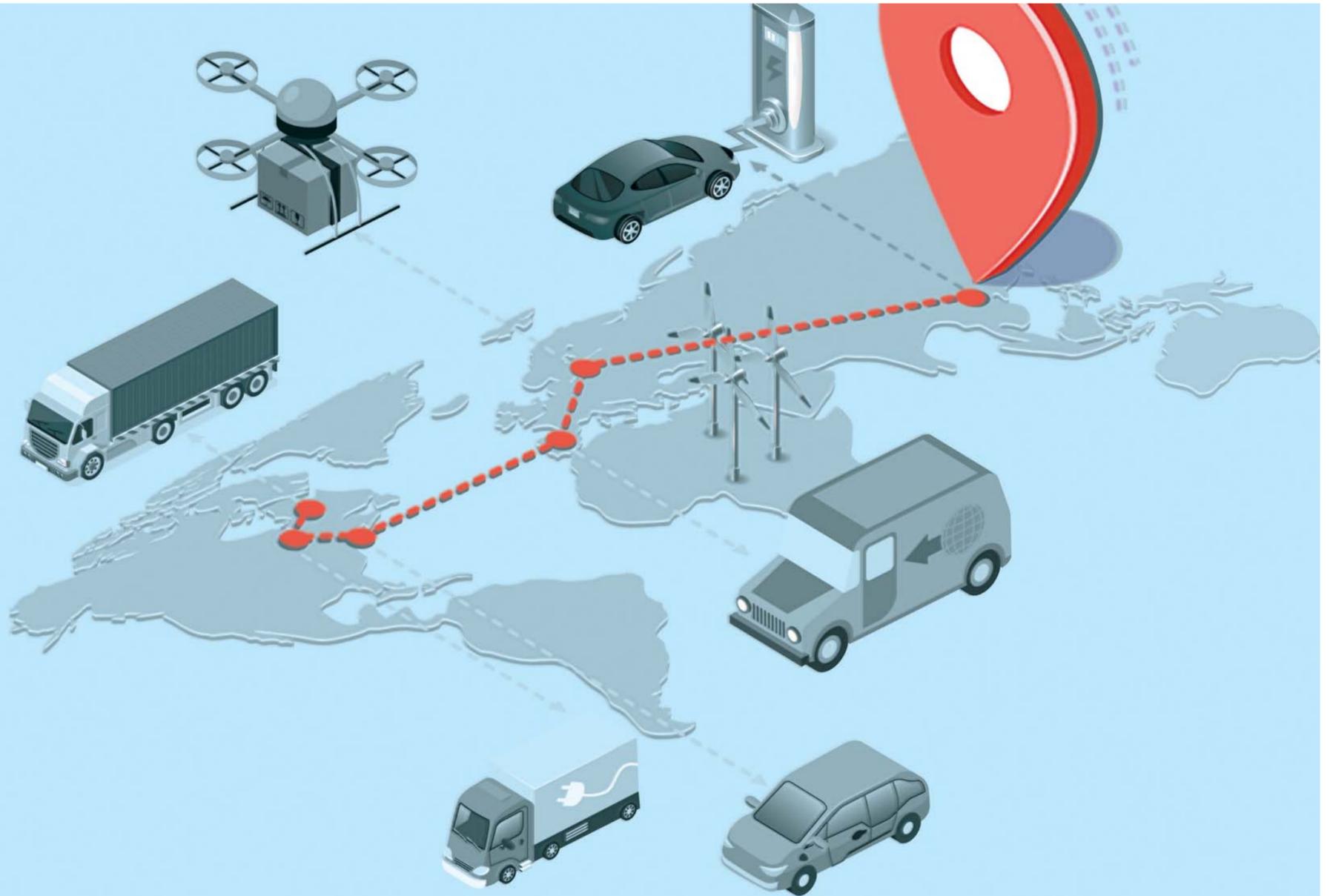
인사

◆ 라이나생명 ◇ 부사장 △ 오퍼레이션(Operation)부문 백의지 ◇ 이사 △ 인사관리본부 김태현

부음

▲ 조규형씨 별세, 조성성(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사업본부 상무)씨 부친상 = 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010-5201-9358

▲ 김갑순씨 별세, 김대돈(KB증권 전략기획부 이사대우)·김익돈·김홍희·김은희씨 모친상=30일, 여의도성모장례식장 6호실, 발인 2일 오전 9시, 02) 3779-1526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명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4~17시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제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 장소 :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포럼 참석 선착순 100명에게 블루투스 무선이어폰을 증정합니다.

美금융자본의 對中 접근금지 의미



차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우려 국가의 군사·정보·감사·사이버 능력에 중요한 민감 기술 및 그 발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 시간) 첨단 반도체, 양자정보 기술, 인공지능(AI) 3가지 분야에서 국가안보에 민감한 기술과 관련 활동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언급한 발언이다. 그는 국가 안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특정하며 미국의 투자가 이같은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단정했다.

미국의 금융자본이나 투자회사들은 자국내 제조업의 쇠락과 對중국 무역적자에 따른 국부 유출에 대응해 전세계를 상대로 자본이득을 벌여주며 미국을 지탱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하이테크기업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

다. 수익이 있다면 주권국가의 존립도 흔들어대는 초국적 자본들의 거센 반발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국익까지 거론하며 초강수를 둔 것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관련, 서방 진영에서 논란이 한창이던 2000년 3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국익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중국은 국영기업이 많고 국가주도 경제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시장경제국가로서의 회원자격에 많은 이의가 제기됐다.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100여개 회원국은 물론 자국 의회까지 설득했다. 결국 중국은 이듬해 국제 자유무역의 틀 속으로 들어왔다.

시간이 흘러 2018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은 큰 경제 권력이지만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게 공평한가”라고 공격했다.

트럼프는 그 해에 “무역상대국들에 의해 미국이 도난당하고 있다”면서 대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첨단기술·군사 용 반도체 수출금지부터 고사양반도체 생

산장비 판매금지, 반도체 보조금 수령기업의 중국사업 제한, 첨단기술기업 중국 투자 사전심사제 등 첨단기술 관련 對중국 규제는 줄을 이었다.

화통정점이 이번 자국 자본의 중국 첨단기업 접근금지 명령일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이래 밀월을 즐기던 두나라 관계는 17년만에 금이 갔고 이제는 적성국이 돼버렸다.

국제 질서는 최근 5년여 사이 분명히 바뀌었다. 소련해체 이후 유일 강대국이 된 미국과 동방의 패자 복귀를 노리는 중국 사이에는 전운이 감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안보와 군사 문제가 전면에서 거론돼 자칫 무력분쟁의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미국의 對일본 전략물자 봉쇄를 얼핏 떠오르게 한다.

과거와 현재의 정보로는 언제나 한계를 보였던 것이 극단적 패권전쟁의 결말 예측이다. 단, 분명한 것은 패권의 향방에 따라 그 주변자들도 부침했다는 점이다.

살얼음판 위에 선 대한민국의 형편을 모두가 좀더 냉철하게 살펴볼 때라고 하면 기우일까.

/sk8472@

근감소증 치유를 위한 밀솔루션 (下)



연 윤 열 의
자유보감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함은 물론 인체 조직을 생성하거나 성장시키고 회복하는 기능을 한다.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다른 배열로 재결합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다.

인류는 진화과정에서 인체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9가지를 생성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9가지 아미노산을 필수아미노산이라 부르고 인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두부, 콩, 견과류(캐슈너트, 피스타치오, 아몬드 등), 퀴노아, 씨

앗 등을 꾸준히 섭취하기 바란다. 특히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서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에는 좋은 지방이지만 햇빛에 노출되거나 가열, 장마철 습기에 취약하여 분해되기 쉽다.

견과류와 씨앗은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면 마이아르 반응에 의해 고소한 맛과 냄새를 나타낸다. 볶을 때 황금색이 되자마자 불을 끄고 남은 잔열을 이용해서 케리오버 쿠킹을 하면 견과류 세포 내에 들어있는 미세한 지방분자(올레오솜)가 확산되면서 내용물이 견과류 전체로 침투되어 훨씬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근육형성을 위해서도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 손상된 근육의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음식에 함유된 단백질이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 DNA부터 각종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분자구조 생성에 관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새로운 단백질로 조립되고 이런 단백질의 일부는 근육같은 인체를 구성한다. 한편 나머지 단백질은 효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근감소증이 의심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물건을 잘 들지 못함 ▲계단 오르기 어려움 ▲ 체중감소 ▲악력 약화 등이다.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가 적절하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한다면 오히려 근육량이 더 감소할 수 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더불어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류신(Leucine) 등 근육생성에 효과적인 측쇄상 필수아미노산이 유효하고 육류, 생선, 유제품뿐 아니라 비타민D, 검정콩, 대두 등은 근감소증을 물리치는 ‘밀솔루션’이 될 수 있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오늘의 운세 9월 1일 (음 7월 1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불행은 남들에게 내보일 필요가 없다. 48년생 삼재팔난이니 구설에 유의. 60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72년생 나의 숨은 실력을 보여 줄 기회가 온다. 84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다.



37년생 먼저 용서하고 칭찬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 49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라. 61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73년생 오늘은 양보와 봉사가 미덕. 85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38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다. 50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62년생 가족들 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74년생 특히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86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39년생 한 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51년생 자식이 짝을 데러오니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다. 63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75년생 기회가 주어지지 않 설이다가 놓칠 수 있다. 87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 주는 힘.



40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52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64년생 고집을 부리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 76년생 시간을 갖고 기다라라. 88년생 화창한 봄날처럼 마음이 여유롭다.



41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53년생 자기중심에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65년생 직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다. 77년생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 89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삶의 아픔도 알아야 한다.



42년생 돈 자랑 말로하지 마라. 5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66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라. 78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라. 90년생 주변사람에게 한 격려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43년생 깊은 밤을 지내면 찬란한 새벽이 온다. 55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67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 79년생 노력해야 큰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법. 91년생 하찮은 걱정은 과감히 버려라.



44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 되는 것. 56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짐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68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치림에도 신경 써야 한다. 80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92년생 돈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45년생 일 처리가 끝나도 성과는 늦게 나타난다. 57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써라. 69년생 말 많은 사람을 조심. 81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니 쪽빛보다 더 푸른 법. 93년생 그림의 떡이 아니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46년생 삶은 계속되고 꿈꿀 시간은 많다. 58년생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70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82년생 행동에 앞서 신중하게 생각하라. 94년생 이혼을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라.



47년생 멀리서 온 소식에 마음이 아픈 하루. 59년생 깔끔한 포기가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71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날. 83년생 너무 사랑하면 결혼은 힘들다. 95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박이 아니니 선무는 판단은 절자.



김상회의 四季 무기와 평화

우리나라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여의도를 지날 일이 있었다. 현수막이 보이는데 글귀는 “평화는 군사력에서!”라는 구호였다. 우선 든 생각은 평화를 원한다면 대화와 화합으로 풀어야지 무력으로 하면 대립만 첨예해지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필자는 금방 생각을 바꾸었다. 힘이 없는 자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음. 세계 역사의 발자취를 보자면 평화는 무력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살펴보면 지구상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발전은 보다 근대화된 무기를 만들어 낸 종족들에게 번영을 안겨 주었다.

인류 역사의 초기에 청동문화에서 철기문화로 이전되면서 청으로 만든 창과 같은 철로 만든 칼과 창을 당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청동기를 사용하던 인도의 원주민 종족들은 철기 무기를 지닌 아리아족에 의해 역사의 패권을 넘겨주고는 수드라나 바이사라고 하는 평민과 노예 그룹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종내에는 자랑스러운 인류문명의 발상지라 알려진 인더스, 갠지스문명의 주인공이었던 인도 원주민들인 드라비다족들은 침입자인 아리아인들의 철제무기에 패하여 지금까지 카스트제도의 아래 계층으로 지내오고 있다.

시대는 흘러 총과 포탄이 발명되면서 철기 무기는 맥을 못 추게 되니 일본과 서양의 신식무기에 우리 조선의 군대는 신미추양요 경술(庚戌)국치를 당하게 된 것도 별반 다르지 않은 예다. 인류의 역사는 무기에 의해 뜨고 무기에 의해 진 것이다. 그렇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나라는 평화를 말 할 주변이 되질 못한다. 역사가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재간은 이미 갖추어진 힘에 있지 않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늘려라**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7		3				1
	1				5			3
2		4			7			
						3	6	8
8				1				2
	5	1	8					
			7				5	4
7			6					2
	2			4			9	

		6			5			1
1		7		4			9	6
	8			1		6		5
			8				1	
3	2							7
			6				3	
	3			5		4		6
4		9		3			5	1
	1			2				4

정답

9	2	6	8	7	5	9	2	1
8	2	1	6	9	9	5	7	2
7	5	9	1	2	2	8	9	6
2	6	7	2	9	8	1	5	5
2	9	5	7	1	6	9	2	8
1	8	9	5	2	9	2	6	7
9	9	8	2	6	1	7	5	2
5	7	2	9	8	2	6	1	9
6	1	2	9	5	7	2	8	9

5	7	8	2	2	6	9	1	9
1	2	9	8	5	9	6	2	7
6	9	2	7	1	9	2	5	8
7	8	5	1	2	2	9	6	9
9	1	9	6	8	7	1	2	5
2	6	1	9	9	5	8	7	2
2	9	7	9	6	1	5	8	2
9	5	6	2	7	8	2	9	1
8	1	2	5	9	2	7	9	6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6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6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엔지니어 마스터 II 다이버 크로노미터
더 많은 보호 기술을 통합하여 강력한
다이버 워치 궁극의 강인함과 극한의
정밀도를 느껴보세요.



www.ballwatch.kr
볼워치 부티크 청담 1544-7593

BALL
OFFICIAL  STANDARD
Since 1891

올 상반기, 와인 덜 마셨다... 성숙기 vs 침체기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요즘엔 '하이볼'... MZ세대 하이볼 열광
#. 위스키 런...히비키부터 발베니까지 대란
올해 '술' 트렌드라는데 어딜 봐도 와인 얘기는 없다. 뉴스에서 와인을 찾으면 나오는 것이라곤 쌓인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할인행사 뿐이다. 와인의 전성시대는 정말 팬데믹과 함께 가버린 걸까.
우선 통계수치부터 확인해보자.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와인 수입 규모는 2억7389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9% 감소한 수준이다. 물량 기준으로도 상반기 수입된 와인은 3130만리터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줄었다.
성장률로 보면 기세는 크게 꺾였다.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7%, 69.6%로 급증했지만



2022년은 3.8%에 그쳤다. 물량은 이미 작년에 꺾이기 시작했고, 금액 기준으로도 올해 연간 기준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수치를 봤으면 다음 단계는 해석이다. 성장세가 꺾였다고 침체기로 봐야하는지 말이다.
2015년 이후 팬데믹 이전까지 국내 와인 수입 규모는 연간 2억달러 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반기만 2억달러를 넘어섰다. 팬데믹 1년차인 2020년 연간 수입량과도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늘지 않는다고 침체라는

평가를 내리기에 무리가 있단 얘기가.
원화로 환산한 수입규모는 약 3600억원이다. 각종 세금과 마진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와인 시장은 반기 기준으로도 이미 1조원대가 넘는 시장이 됐다.
오히려 그간의 성장세가 너무 가팔랐다. 사실 팬데믹이라는 특수 요인이 사라진 이후로도 와인 시장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만약 2019년 이후 연간 10%대의 성장을 꾸준히 했다고 가정해도 올해만큼 규모가 크진 않다.
다만 와인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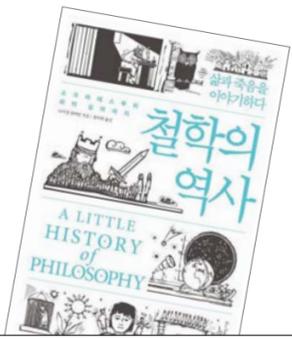
일리는 있다. 와인을 수입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도 말이다.
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주류수출입 면허를 새로 받은 곳만 300여곳이 넘는다. 와인 열풍이 불면서 신규 진입업체들 상당수가 수입주류 중에서도 와인을 수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 과잉 상태다.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된 신규 업체들의 경우 떠안고 있는 재고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와인 소비층이 제한적이라보니 신규 소비자의 유입도 더뎠다. 오늘 일만 남은 와인 가격도 약재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이 와인 업계에도 불어닥쳤고, 거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널뛰기를 하는 환율도 부담이다.
전체 수입 주류 시장을 놓고 보면 최근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됐다. 품질대란을 빚은 위스키를 비롯해 럼과 진, 보드카까지 일제히 늘었다.
올해 상반기 위스키 수입규모는 1억3329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물량 기준으로는 1688만리터로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50.9%나 증가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삶의 문제 해결할 지혜 갖고 싶다면

지인 중 하나가 그림책 작가가 되는 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한 달 내내 철학 강의를 듣고 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스승은 예술에 철학이 담겨야 뛰어난 작품이 된다는 가르침을 전수했다고. 대체 철학이 뭐길래, 철학하는 사람, 즉 철학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philosopher'는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참이라고 정의한 개념이 아니다. 끝없는 논쟁과 추론,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도출해 내야 하는 '세상의 이치'다.
철학자들은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하기 위해 실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몰두한다. 철학이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철학의 역사'는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픽테토스, 아우구스티누스, 프리드리히 니체,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피터 싱어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철학자들이 골몰한 화두를 소개한다.
책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심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다. 고뇌 끝에 그가 내린 답은 '행복을 추구하라'는 것이었다. 행복을 좇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직장을 때려치우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 매일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 즐기는 것, 하루종일 늘어지게 잠만 자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에 절여 사는 게 최고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행복은 우리가 마음을 쓰는 타인들에게 벌어진 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



철학의 역사
나이절 워버턴 지음/정미화 옮김/소소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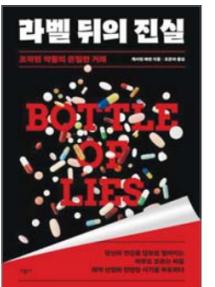
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올바른 성품을 갖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덕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아학과 철학자들은 '마음의 통제'에 집중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상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다. 감정을 날려치듯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스토아학파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선택의 문제라고 여겼다. 노예 출신에서 황제의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는 육체는 노예가 돼도 정신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인간으로 살면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전수하는 책.
340쪽. 2만1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라벨 뒤의 진실

캐서린 에반 지음/조은아 옮김/시공사

몸에 탈이 난 사람들은 의사의 말만 믿고 그가 처방한 약들을 매일 한 움큼씩 삼킨다. 건강해지기 위해 먹은 약들은 진짜 우리 몸을 위한 것이었을까. '라벨 뒤의 진실'은 세계적인 제약 회사와 미국 보건복지부, 미국 식품의약국이 결탁해 저지른 위법 행위를 낱알이 들춰낸다. 저자는 실험실 테스트 기록을 일성적으로 조작하는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제조업체, 값싼 불순물이 함유된 약물을 기부한 제약 회사들을 고발한다. 캐서린 에반은 약병에 붙은 라벨과 전혀 다른 약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조직적인 범죄와 관련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세계 최고의 공중보건 혁신이 어떻게 가장 놀라운 사기극이 됐는지 까발린다. 512쪽. 2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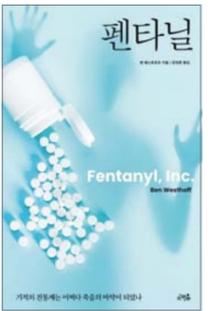


펜타닐

벤 웨스트호프 지음/장정문 옮김/소우주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에는 약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독자가 넘쳐난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큰 마약 거리로, 경찰의 단속조차 불가능하다. 허리를 굽히고 팔을 늘어뜨린 채 거리를 배회하는 중독자들로 인해 '좀비랜드'라고 불린다. 미국 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9년 7만명에서 2021년 10만7000여명으로 약 53% 폭증했다. 이

중 대부분이 펜타닐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 말기 암 환자 등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펜타닐은 어쩌다 불법 마약으로 전락했을까. 책은 미중 간의 갈등, 멕시코 카르텔의 개입, 다크 웹을 통한 은밀한 거래, 제약회사의 탐욕, 효과적인 마약 정책 부재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펜타닐이 전 세계에 퍼졌다고 분석한다.
444쪽. 2만원.



어른의 말글 감각

김경집 지음/김영사

보고 듣고 읽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 빨리 감각과 건너뛰기, 요약본이 없으면 답답해 숨이 턱턱 막힌다. 2배속으로 빨리 보면 생각하는 힘이 곱절로 강해질까. '어른의 말글 감각'은 언어의 속도를 조절해 생각의 주도권을 되찾고 콘텐츠를 이끌어내는 '언어만지기'를 소개하는 책이다. 언어 만지기는 이성과 감성을 총동원해 말

과 글을 입체적으로 알고 느끼고 반응하는 일을 의미한다. 저자는 시, 속담, 에세이 등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언어를 흔들고 말고 맛보다 보면 관을 뒤집을 새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언어를 만지는 일은 결국 말과 글뿐 아니라 삶까지 만지고 돌아보는 일이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296쪽. 1만6800원.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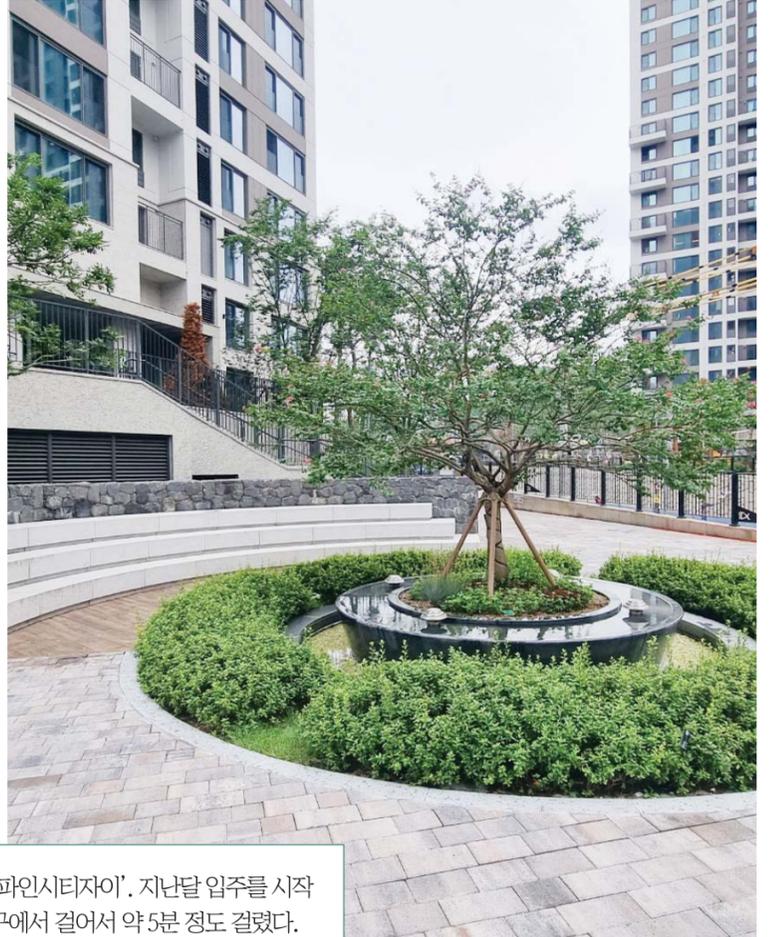


▲남아공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서 화재...최소 63명 사망 /사진 뉴시스
▲日記시, 도쿄 수산시장서 “중수입 규제 철폐 압박”

▲트럼프 후보 자격 둘러싼 헌법 논란 가열
▲“美, 대만서 190km 떨어진 필리핀 섬 항구개발 논의 중”



▲북러 무기협상에 유엔서 뭉친 한미일...“안보리 결의안 위반”
▲EU 외교수장 “우크라이나 1만명 추가 훈련-28조원 기금 조성” 제안 /사진 뉴시스



아파트의 미학(美學)
DMC 파인시티자이

팽나무 가득 휴양림에
꽃이 피는 아늑한 정원까지...
육·수생 비오톱 조성도

찾았다!
도심 속 도심 아닌 곳

경의중앙선 수색역서 도보 5분 거리
인근에 수색초, 중산 초·중, 수일시장 등 자리잡아
최고 30층, 15개동에 총 1223가구 규모
차세대 실내 환기 시스템 적용으로 '미세먼지 차단'
엘리시안 가든·동 앞 정원 등 조성으로 조경·휴식공간 마련
어린이집 갖추고, 작물 키울수 있는 '텃밭' 설치



'엘리시안 가든'에 조성된 휴식 공간.

최근 찾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파인시티자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경의중앙선 수색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DMC아트포레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가 위치해 있었다. 주변에는 수색초등학교와 중산 초·중학교, 수일시장, 증산체육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수색증산뉴타운 6구역에 들어선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15개동, 총 1223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59㎡ ▲74㎡ ▲84㎡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자이' 로고가 부각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는 단지는 저층부를 인상적인 석재 디자인으로 마감해 고급스러움과 안정감을 극대화했다. 일부 동에는 대형 옥상 장식물과 아름다운 야경을 선보이는 LED 경관 조명을 적용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조망과 채광, 통풍을 고려해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단지의 안과 밖을 이어주는 넓은 통경축을 확보해 바람길을 조성했다. 단지 내 상업 시설을 바로 누릴 수 있는 연도형 상가도 도입했다.

단지에는 차세대 실내 환기 시스템이 적용됐다. 해파급 필터 내장형 전열교환기를 적용해 빠져나가는 냉기·온기를 회수하고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며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거실에 미세먼지, CO2 및 냄새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자동으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 아파트로 단지를 조성한 것도 눈에 띄었다. 주차 공간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총 1562대(가구당 1.28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빛물 활용 시스템, 전력회생형 엘리베이터 등을 단지에 적용해 에너지와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다"면서 "세대에 자이스마트패스 시스템을 적용해 원패스 카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공동현관이 자동으로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호출돼 거주하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에는 'DMC 파인시티자이'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자이를 대표하는 가든형 조경 공간인 '엘리시안 가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팽나무 휴양림에 둘러싸인 곳에는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어 입주민에게 쾌적한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몇몇 단지 바로 앞에는 도시 일상에서 벗어나 꽃이 피는 아늑한 정원을 느낄 수 있는 '동 앞 정원'이 자리 잡고 있다. 정원에는 벤치가 놓여 있어 입주민들에게 휴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입주민의 편의와 문화,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룸, 작은도서관, 독서실, 카페테리아,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입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됐다. 어린이집 옆에는 테마 놀이터 '나만의 자그마한 공간 숲속의 아지트'와 아이들이 직접 작물을 키워볼 수 있는 '텃밭'이 설치됐다.

단지에는 꽃이 활짝 피어난 언덕의 풍차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향기로운 풍차'와 음악 발표회를 모티브로 만든 '숲속의 아름다운 선율 꼬마 달팽이의 음악회'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어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다.

단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도 보여줬다. 곤충과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집과 돌무더기 등을 만들어 '육생 비오톱(인간과 동식물 같은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을 완성했다. 연못과 햇대를 만들고 수생식물과 나무를 심는 등 '수생 비오톱'도 조성했다.

/글·사진=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파인시티자이'의 조경 공간 '엘리시안 가든(왼쪽)'과 휴식공간.



테마 놀이터 '숲속의 아름다운 선율 꼬마 달팽이의 음악회'(위부터) '나만의 자그마한 공간 숲속의 아지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향기로운 풍차'.



추석 성수품 공급
1.6배 늘린다
농축수산물 60% 할인
04



Life

유동기업 총출동
내수진작 위한
큰 장 열렸다
니



달콤한 통팍, 우유 만나니... “아! 맛나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롯데월드푸드 ‘아맛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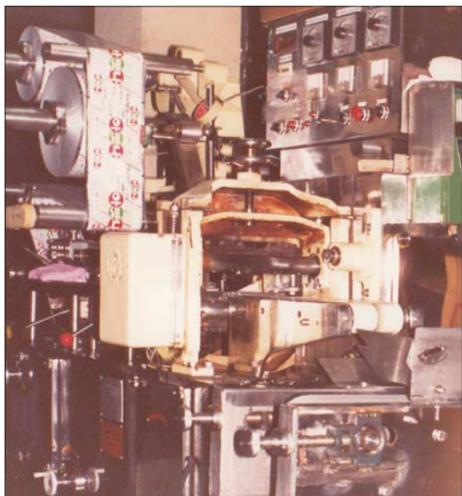
1962년, ‘삼강하드’ 출시해 시장 판도 바뀌어 아이스크림 제조기 도입, 대량생산체제 시작 불량식품이던 ‘아이스끼끼’서 간식 ‘하드’로

1971년, 최신시설 도입 빙과제품 3종 선택 달콤한 통팍 시럽 우유로 감싼 ‘아맛나’ 탄생 빙과시장 석권... ‘팍 아이스크림 대명사’로

국내 판매중인 바 아이스크림 중 가장 오래된 제품은 올해로 51주년 맞은 롯데월드푸드(옛 롯데제과)의 아이스크림 ‘아맛나’다. 장수 제품이 많은 빙과업계에서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랑받는 제품은 매우 드물다.

국내 빙과산업이 1962년 ‘삼강하드’ 출시 이후 본격 전개된 것을 고려해 볼 때 롯데월드푸드 아맛나는 국내 빙과산업을 묵묵히 지켜본 제품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빙과 산업은 1950년대~60년대 초반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아이스끼끼(아이스케이크)’라고 부르는 막대형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설탕이나 사카린을 넣은 단물에 적당한 색소를 넣어 얼린 제품이어서 사실상 불량식품이나 다름없었고, 판매도 판



1970년대 아맛나 설비(위)와 출시 당시 ‘아맛나’.

매원들이 빙과통을 어깨에 둘러 메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파는 방식이었다. 빙과분야는 아직도 산업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먹거리가 부족했던 1950~1960년대에 아이스끼끼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는 대표적인 간식거리 또는 기호식품으로 인기가 매우 높았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수많은 군소 사업자들이 행정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난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1962년 삼강유지화학(현 롯데월드푸드)이 최신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설치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삼강유지화학은 일본 최대의 우유제품 생산업체인 유키지루시(雪印)유업(株)과 기술제휴를 맺고 이 회사로부터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도입했다.

새로 도입한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위생적인 공정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이어서 수작업에 의존하여 한정된 물량을 생산하던 기존의 제조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최신 설비였다.

같은해 7월 삼강유지화학은 이 최신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가동해 우리나라 최초의 대량생산체제로 만든 아이스크림인 ‘삼강하드’를 생산, 출시했다. 당시 삼강하드의 가격은 5원이었다.

삼강하드는 출시되자마자 시장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기존 아이스끼끼와는 달리 위생적으로 잘 포장된 패키지에다 맛도 좋고 바(bar) 형태로 만들어져 먹기에도 편리했기 때문에 너도나도 삼강하드를 찾았던 것이다.

아이스끼끼가 불량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삼강하드의 인기를 부채질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당시 정부가 ‘식품위생법’을 제정하고 기존 아이스끼끼를 불량식품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아이스끼끼는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삼강하드는 아이스크림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특히 아이스끼끼로 통하던 아이스크림의 명칭이 ‘하드’로 통일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드는 삼강유지화학이 만든 바 타입 아이스크림의 이름이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제품으로 대중화되는 바람에 보통명사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이때부터 사용된 하드라는 명칭은 지금까지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삼강산업은 덴마크의 그람사(GRAMSE)로부터 완전 자동 아이스크림 제조기 ‘리아텐(RIA-10)’ 및 포장시설을 도입해 다시 한번 국내 빙과산업을 진일보했다.

1971년 12월 도입한 그람사의 리아텐 설비는 후르츠 피더(과일 투입 시설)까지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완전 자동화 설비로, 시간당 3만개의 각종 아이스크림을 생산할 수 있는 최신시설이었다. 이를 통해 삼강산업은 천연과일의 맛을 담은 신종 삼강



◀1972년(출시)



1970년대 ▶



◀1980년대



1990년 ▶



◀1994년



1997년 ▶



◀2001년

아이스바, 아이스 컵, 아이스크림 등 3종의 빙과제품을 출시했다.

이듬해 삼강산업이 출시한 제품이 바로 ‘아맛나’다.

아맛나는 달콤한 통팍시럽을 우유가 섞인 시원한 얼음이 감싸고 있는 모양의 바 제품이다. 얼음을 먹을 때의 시원함과 특유의 아삭한 식감도 일품이지만 얼음 한 가운데에 통팍시럽을 넣는 것이 당시로서는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고급기술이어서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심지어 빙과시장을 석권했다는 찬사까지 들으며 ‘팍 아이스크림의 대명사’로 불리곤 했다.

이후 삼강산업은 1976년에 출시한 ‘쭈쭈바’ 역시 크게 히트를 치며 국내 빙과산업을 이끌어 왔다. 쭈쭈바는 삼강하드에 이어 제품명이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이르는 말이 되는 기록을 썼다.

1972년 출시 이래 반백살을 넘은 아맛나는 2022년에는 50주년을 맞아 한정판으로 ‘아맛나 앙상블’을 선보이기도 했다. 롯데월드푸드의 아맛나는 지금도 연간 2800만개 이상 판매되며 오랜 사랑을 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메시, 10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불발... 마이애미는 무승부
▲차두리, 클린스만호 코치 합류할 듯... 마이클 김과 결별 /사진 뉴시스

▲프로축구 광주 엄지성, 8월 영플레이어 수상
▲내년 체육기금 3.3조원 편성... “스포츠산업 발전·복지 강화”



▲김하성, 2경기 연속 멀티히트... 팀은 이틀째 역전패 /사진 뉴시스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 축구 유소년 아카데미 출범